

온 행성에 세차게 굽이치는 김정은열풍

인류가 낳은 천출위인께 세계 진보적인민들 다함없는 흠모와 지성 표시

국제사회의 관심과 이목이 지금 출중한 위인적품모와 뛰어난 령도력, 한없이 고매한 덕망을 지닌 신선군조적인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 집중되고있다.

승리와 영광으로 빛나는 주제조선의 100년사를 총화하고 새로운 100년대를 맞이한 력사의 나날에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를 우리러만민이 더 친 열화같은 칭송은 온 누리를 진감하였다.

세계 진보적인민들은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를 또 한분의 자주의 태양으로 높이 우러러모시고있다.

영광의 4월, 전세계 주제사상신봉자들의 한결같은 념원에 의하여 김일성-김정일주의의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도 평양에서 열린 주제사상세계대회는 비상한 력사적의미를 인류정치사에 아로새기었다.

대회에 채택된 평양선언은 김정은각하를 조선로동당 제1비서로 높이 추대한다는 력사적사건이라고 하면서 전국 참가자들은 주제위업의 위대한 계승자이신 그의 사상과 령도를 하늘땅 끝까지 따를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새로운 주제100년대가 시작되는 력사의 분수령에서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를 현시기 사회주의와 세계자주화위업의 진두에 높이 모신 크나큰 영광과 행운을 온 행성에 선언한 대회

는 자주시대의 새로운 령도자를 마련한 중대한 정치적 회합이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 탄생 100돐경축 국제축전 참가자들도 김일성주석과 김정일총비서의 특출한 인품과 세련된 령도실력을 그대로 계승하신 김정은최고령도자를 모시어 세계자주화위업의 전도는 끝없이 휘황찬란하다고 격정에 넘쳐 도로하였다.

그들은 세계 진보적인민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에서 다음과 같이 확인하였다.

태양이 밝힌 자주의 궤도는 불변하며 인류자주위업에 기여이 실현하려는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신념은 굳건하다.

태양의 위업을 빛나게 계승해나가는 경애하는 김정은각하께 인류의 광명적인 미래를 의탁하고 온 세계의 자주화를 힘있게 다그쳐나가자.

절세의 위인들을 따라 세계의 자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 앞장서온 우리들은 앞으로 위인칭송의 마음을 합쳐 태양의 위업을 영원히 받아들일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 세계 진보적인민들은 다함없는 축원의 마음을 담아 삼

가 지성의 세계를 펼쳐드리었다.

5대륙 방방곡곡에서 태양절 100돐에 즈음하여 그이께 드린 상, 훈장, 메달, 명예칭호, 축기와 지성어린 선물들만도 무려 200여점에 달한다.

많은 나라들의 정치방식을 연구하는 과정에 공화국의 선군정치에 관심을 둔 아프리카평화기금 인사들은 주제의 선군혁명위업을 빛나게 계승하시어 세계평화에 기여하라는 뜻을 밝히며 주제의 기상을 만방에 떨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 평화상과 상장을 드리었다.

몽골평화친선선명에서는 평화금보훈장을, 주제사상 및 선군정치연구 네팔가자협회에서는 명예특별회원증을, 네팔국기자국력부에서는 명예회원증서와 2012년 기자평화상을, 국제반제정위위원회와 스위스조선위원회, 스위에조선친선협회에서는 축기들을 올리었다.

별가리아반과소동맹도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인류의 공고한 평화와 자유를 위해 공헌하시는 김정은동지이시야말로 위인들의 위인이시라고 하면서 그이께 반과소동맹에 활동가칭호를 수여해 드리었다.

뜻깊은 태양절 100돐을 맞으며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 만민이 드린 수많은 선물들에는 인류의 지향인 사회주의위업을 수호하고 향도하시는 천출위인에 대한 무한한 신뢰의 정이 깃들여있다.

4월의 봄명절에 우리 나라를 방문한 아시아지역 주제사상연구소 리사장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의 뜻을 받들어 선군조선의 빛나는 전통과 자주의 기상을 만방에 떨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에 대한 끝없는 존경을 담아 그의 태양같이 환하신 영상을 정중히 모신 수정공예품을 마련하였다.

주제사상국제연구소 사무국장인행과 주제사상국제연구소 연구원대표단, 일본 김일성주의연구회대표단, 일본주제사상연구소대표단, 남아프리카주제사상연구소대표단, 남아프리카주제사상연구소대표단 성원들이 마련한 유화 《온 세상에 만발한 김일화, 김정일화》, 나무민속공예품, 병갈범을 형상한 동공예품 등에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 지니신 무비의 담력과 배짱, 명활한 지략에 대한 애호와 흠모의 정이 담겨져있다.

태양조선이 받아들여온 백두산위인들을 칭송하여

선물에서 보다싶이 조그마한 금속편들이 빛을 받으면 돌아간다.

조선은 비록 크지 않은 나라이지만 세계정치의 중심에서 위대한 힘으로 세계를 움직이고있다.

햇빛은 이 축정기구를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다. 다시말하면 세계의 태양은 바로 김정은동지이다.

위대한 태양을 모신 조선이 세계를 주도하며 주제의 길로 확신성있게 나아가고 생각하는 나의 심정이 그대로 이 선물에 반영되어 있다.

김정은동지께서 이것을 보시면서 잠시나마 현지도의 길에서 쌓인 괴로를 푸시기를 간절히 희망한다.

로씨야청년선군정치연구협회대표단, 로씨야주제사상연구소협회대표단, 방글라데시주제사상연구소대표단, 남아프리카주제사상연구소대표단 성원들이 마련한 유화 《온 세상에 만발한 김일화, 김정일화》, 나무민속공예품, 병갈범을 형상한 동공예품 등에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 지니신 무비의 담력과 배짱, 명활한 지략에 대한 애호와 흠모의 정이 담겨져있다.

태양조선이 받아들여온 백두산위인들을 칭송하여

세송이의 해바라기를 3개월 동안 정성껏 수놓은 별가리아 쏘피아에 있는 김일성도서실 책임자데리와 성원들, 나라의 전반사업을 돌보시라느라 바쁘신 시간을 보내시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 자기의 자그마한 성의라도 갖든 선물을 드리고싶었다는 니까라과대통령의 특사, 하늘이 낸 또 한분의 위인의 인성을 절절히 념원하며 모독도리를 준비한 베투주제사상연구소대표를 비롯하여 수많은 진보적인민들의 경모와 지성의 마음은 정녕 끝이 없다.

각국의 정계, 사회계와 국제기구 인사들이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에 대한 무한한 신뢰의 정을 담아 흠모작품을 창작하고있다. 조선통일지지 구비위원회 제1부위원장을 비롯한 각계 인사들은 《조선에 새로운 별이 솟았다》, 《김정은! 당신께 영광을》, 《김정은대장 발걸음따라》, 《김정은 당신을 노래하노라》 등 시가작품을 앞을 다투어 발표하였다.

주제사상국제연구소 리사장은 《김정일, 세계를 진감시킨 조선의 백전백승》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위인의 위업은 위인에 의

해서만 확고히 계승된다고 하였다.

김정일령도자의 선군위업은 새 령도자이신 김정은최고령도자에 의해 훌륭히 계승되고있다.

세계는 그분의 위인적품모에 커다란 충격을 받고있다. 진정한 김정은령도자는 저 하늘에서 지구위에 내려오신 또 한분의 불세출의 위인이시다.

세계정치의 무대에는 김일성시대, 김정일시대에 이어 김정은시대가 장엄히 펼쳐지고있다.

주제사상국제연구소 사무국장은 글 《김일성, 그이는 인류의 영원한 태양》에서 오는 김일성주석과 김정일령도자의 위업은 경애하는 김정은령도자에 의하여 빛나게 계승되고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퍼력하였다.

김정은령도자께서 공식석상에 나오시자마자 세계의 이목이 그이께 집중되었다.

어느 한 인터넷홈페이지에서 나는 다음과 같은 글을 보았다.

《북의 김정은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은 후계자로 공식 등장하자마자 일약 세계적명인으로

되되었다. ... 미국 CNN방송은 북의 김정은부위원장상을 세계최고관심도의 10대명인으로 선정했다. ... 북에서 후계체제가 공식화된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세계는 미국을 자기 배장대로 다루면서 정치체제강화, 국방건설, 경제건설 등 할 일을 다하는 북의 후계자의 첫 실력을 알게 되었고 김정은시대의 미래를 예상할 수 있게 되었다.》

참으로 경애하는 김정은령도자는 결코 슬픈아니라 사상과 령도풍모, 덕망에 있어서 선대수령들과 똑같은분이다. 조선이 낳은 또 한분의 걸출한 위인이신 김정은령도자께서 계시어 인류태양의 위업은 빛나게 계승되고있다.

조선과의 친선협회 위원장은 시 《우리의 대가정》에서 백두산의 횡령을 이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계시어 승리할 미래가 우리앞에 펼쳐지고 불세출의 위인들을 영원히 높이 모신 우리의 대가정은 굳건하리라고 강조하였다.

실로 온 행성에 세차게 굽이치는 김정은열풍은 주제혁명위업의 위대한 계승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를 사회주의기치로, 인류운명의 수호자로 모시고 따르는 만민의 다함없는 경모와 신뢰의 열화같은 분출이다. 본사기자

조국소식

제38차 정일봉상 전국청소년학생체육경기대회 개막

제38차 정일봉상 전국청소년학생체육경기대회가 개막되었다.

각도에서 선발된 5000여명의 청소년학생들이 참가하는 경기대회에서는 태권도, 룽구, 배구, 탁구를 비롯한 30여개 종목의 경기들이 종합교과와 사회교과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개막식이 16일 청춘거리 룽구경기장에서 있었다.

개막연설을 전유남 청년동맹중앙위원회 1비서가 하였다.

연설자는 온 나라 청년전위들이 백두산절세위인들을 영원한 태양으로 높이 모시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새로운 주제100년대진군을 힘차게 다그쳐나가고있는 시기에 경기대회를 개막하게 된다고 말하였다.

모든 선수들이 경기마당에서 평시에 련마한 높은 체육기술과 완강한 투지, 집단주의정신, 고상한 도덕품성을 발휘하여 훌륭한 성과를 거둘데 대하여 그는 강

조하였다.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이 주악되는 속에 청년동맹기발이 계양되고 선수들의 분렬행진이 있었다.

개막식이 끝난 다음 청소년학생들의 태권도시범출연과 함경남도 함흥시 서운중학교와 함경북도 청진시 송평중학교 남자선수들의 룽구경기기가 진행되었다.

개막식에는 리영수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관제부원 일군들, 청소년학생들이 참가하였다.

공화국의 최고준엄을 또다시 증상모독한 남조선의 리명박위세끼무리의 천하무도한 악행은 국제사회계의 커다란 분노를 자아내고있다.

로씨야 평화 및 통일당 집행위원회는 성명에서 다음과 같이 단죄하였다.

집권초기부터 6.15북남공동선언을 거부하고 체계적으로 반공화국책동과 로골적인 비난을 일삼아온 리명박괴뢰의 광기는 집권말기에 극도에 달하고있다.

타락한 국가활동가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영원한 주적이신 김일성동지의 탄생 100돐을 경축하는 나날에 미국의 비호하에 감행된 리명박괴뢰의 로골적인 망동은 그 무엇으로써도

국제사회계가 강력히 규탄

정당화될수 없는 반민족적이며 비도덕적인 범죄행위이다.

나이제리아주제사상연구소 전국위원회 위원장은 조선의 최고준엄을 함부로 모독하고 신성한 주제의 태양을 헐뜯는 리명박괴뢰에 대한 뿔어오르는 분노를 참을수 없다고 하면서 역적무리들의 무기한 행위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진보적인민류에 대한 전면도전이라고 락언하였다.

김일성주석 탄생 100돐경축 일본 교토부추진위원회 대표위원은 리명박의 언행들은 정치가라고 하기에는 너무도 유치하고 품성이 없으며 이러한 발언이나 행동은 결코 어리석은 인간이 하는 것이라고밖에 달리 생각할수 없다고 조소하였다.

프랑스조선친선협회는 다음과 같이 성명하였다. 지금 조선에서는 리명박역도의 반공화국모략책동을 규탄하는 군민의 분노에 찬 웨침이 계속 터져나오고 있다.

우리는 긴장완화와 화해를 외면하면서 북남대결을 고취하고 조선반도정세를 극도로 긴장시키고있는 남조선 리명박보수 《정권》의 반공화국책동을 준렬히 규탄하며 리명박이 이에 대해 조선인민에게 당장 사죄할것을 촉구

한다.

일조학살교육교류협회 회장은 조선의 발전하는 현실을 보지 않고 외곡날조된 허위정보와 억측, 편견을 가지고 공화국을 비난하며 조선인민이 생명보다 더 귀중한 여기는 최고준엄에 대한 모독행위를 반복하고있는 리명박 《정권》을 절대로 용납할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베네수엘라대학 학생인민전선 위원장은 양기의 개들인 리명박역적괴뢰당이 더러운 주둥이를 다물게 하기 위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조치들은 천만만 정당할것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명하였다.

베네수엘라대학 학생인민전선 위원장은 양기의 개들인 리명박역적괴뢰당이 더러운 주둥이를 다물게 하기 위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조치들은 천만만 정당할것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명하였다.

우리는 긴장완화와 화해를 외면하면서 북남대결을 고취하고 조선반도정세를 극도로 긴장시키고있는 남조선 리명박보수 《정권》의 반공화국책동을 준렬히 규탄하며 리명박이 이에 대해 조선인민에게 당장 사죄할것을 촉구

한다.

일조학살교육교류협회 회장은 조선의 발전하는 현실을 보지 않고 외곡날조된 허위정보와 억측, 편견을 가지고 공화국을 비난하며 조선인민이 생명보다 더 귀중한 여기는 최고준엄에 대한 모독행위를 반복하고있는 리명박 《정권》을 절대로 용납할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우리는 긴장완화와 화해를 외면하면서 북남대결을 고취하고 조선반도정세를 극도로 긴장시키고있는 남조선 리명박보수 《정권》의 반공화국책동을 준렬히 규탄하며 리명박이 이에 대해 조선인민에게 당장 사죄할것을 촉구

우리는 긴장완화와 화해를 외면하면서 북남대결을 고취하고 조선반도정세를 극도로 긴장시키고있는 남조선 리명박보수 《정권》의 반공화국책동을 준렬히 규탄하며 리명박이 이에 대해 조선인민에게 당장 사죄할것을 촉구

우리는 긴장완화와 화해를 외면하면서 북남대결을 고취하고 조선반도정세를 극도로 긴장시키고있는 남조선 리명박보수 《정권》의 반공화국책동을 준렬히 규탄하며 리명박이 이에 대해 조선인민에게 당장 사죄할것을 촉구

조선을 반대하는 남조선 괴뢰들의 도발적인 행위는 결코 용서받을수 없는 죄악이다.

수령결사옹위정신은 전체 조선인민이 심장으로 간직하고있는 불굴의 신념이다. 조선의 무장력은 공화국을 침해하는 양키제국주의자들과 남조선괴뢰들의 도발된 점들을 순식간에 재더미로 만들것이다.

베네수엘라대학 학생인민전선 위원장은 양기의 개들인 리명박역적괴뢰당이 더러운 주둥이를 다물게 하기 위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조치들은 천만만 정당할것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명하였다.

우리는 긴장완화와 화해를 외면하면서 북남대결을 고취하고 조선반도정세를 극도로 긴장시키고있는 남조선 리명박보수 《정권》의 반공화국책동을 준렬히 규탄하며 리명박이 이에 대해 조선인민에게 당장 사죄할것을 촉구

우리는 긴장완화와 화해를 외면하면서 북남대결을 고취하고 조선반도정세를 극도로 긴장시키고있는 남조선 리명박보수 《정권》의 반공화국책동을 준렬히 규탄하며 리명박이 이에 대해 조선인민에게 당장 사죄할것을 촉구

우리는 긴장완화와 화해를 외면하면서 북남대결을 고취하고 조선반도정세를 극도로 긴장시키고있는 남조선 리명박보수 《정권》의 반공화국책동을 준렬히 규탄하며 리명박이 이에 대해 조선인민에게 당장 사죄할것을 촉구

우리는 긴장완화와 화해를 외면하면서 북남대결을 고취하고 조선반도정세를 극도로 긴장시키고있는 남조선 리명박보수 《정권》의 반공화국책동을 준렬히 규탄하며 리명박이 이에 대해 조선인민에게 당장 사죄할것을 촉구

우리는 긴장완화와 화해를 외면하면서 북남대결을 고취하고 조선반도정세를 극도로 긴장시키고있는 남조선 리명박보수 《정권》의 반공화국책동을 준렬히 규탄하며 리명박이 이에 대해 조선인민에게 당장 사죄할것을 촉구

우리는 긴장완화와 화해를 외면하면서 북남대결을 고취하고 조선반도정세를 극도로 긴장시키고있는 남조선 리명박보수 《정권》의 반공화국책동을 준렬히 규탄하며 리명박이 이에 대해 조선인민에게 당장 사죄할것을 촉구

우리는 긴장완화와 화해를 외면하면서 북남대결을 고취하고 조선반도정세를 극도로 긴장시키고있는 남조선 리명박보수 《정권》의 반공화국책동을 준렬히 규탄하며 리명박이 이에 대해 조선인민에게 당장 사죄할것을 촉구

우리는 긴장완화와 화해를 외면하면서 북남대결을 고취하고 조선반도정세를 극도로 긴장시키고있는 남조선 리명박보수 《정권》의 반공화국책동을 준렬히 규탄하며 리명박이 이에 대해 조선인민에게 당장 사죄할것을 촉구

우리는 긴장완화와 화해를 외면하면서 북남대결을 고취하고 조선반도정세를 극도로 긴장시키고있는 남조선 리명박보수 《정권》의 반공화국책동을 준렬히 규탄하며 리명박이 이에 대해 조선인민에게 당장 사죄할것을 촉구

제1차 전국교육과학연구토론회 진행

제1차 전국교육과학연구토론회가 13일과 14일 평양에서 있었다.

토론회는 교육사상리론 및 전략, 교육기초리론, 사회과학교육내용 및 방법, 자연과학교육내용 및 방법, 교육정보화분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유훈과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교원, 연구사, 일군들이 교육과학연구사업을 힘있게 벌려 이룩한 250여건의 우수한 논문들이 발표되었다.

김일성종합대학, 김형직사범대학, 평양건설건축종합대학, 평양기계대학, 원산사범대학, 선천교원대학, 평양제1중학교를 비롯한 단위들이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교육과학을 새로운 단계로 올려세우는데 이바지할 많은 연구문헌들을 제출하여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과학기술발전의 추세에 맞게 교육과학을 발전시키는 데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 최첨단돌파를 위한 기술대학 전공강좌의 교육적락문제,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교수형식을 개선하는데서 나서는 과업, 원격강의안장적지연체계의 설계와 실현에 대한 연구, 화학실험교육에서 직관수단의 적용은 학생들의 인식효과와 실기능력을 높이는 교수방법, 학생들의 입말능력을 높여주는 영어회화교수방법을 비롯한 논문들은 실천적의의가 큰것으로 하여 참가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그는 직업적혁명가로서 내세워주신 백두산위인들의 크나큰 믿음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교육과학연구를 심화시켜 교육강국, 인재대국을 건설할데 대한 당의 구상을 실현하는데서 모두가 맡겨진 책임과 역할을 다해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토론회에서는 모범적인 단위와 우수한 논문을 내놓은 참가자들에 대한 시상이었다.

해마다 5월 18일이 오면 남녘의 민심은 광주의 무등산으로 향한다.

바로 이곳에 32년전 자유와 민주를 웨치며 투쟁에 나섰다 계엄군의 야수적잔압에 의해 참살된 민주항쟁용사들이 잠들어있기때문이다.

《유신》독재자가 거꾸러진 후 남조선에서는 1980년 5월에 이르러 《민주화의 날》 기운이 울려드였다. 그러나 12.12 《속군쿠테라》로 군권을 강탈한 전두환일당은 《정권》장악을 위해 비상계엄령을 전역에 확대선포하고 민주인사들과 애국적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을 다치는대로 탄압해나갔다.

그것은 마침내 인민들의 쌓이고쌓인 분노의 도화선에 불을 달았다. 《비상계엄령 해제》, 《전두환 타도》, 《민주정부수립》, 《민주개혁실시》 등의 구호말에 항쟁의 거리에 떨쳐나선 광주의 수십만시민들은 무장을 갖추고 계엄군을 도사막으로 내몰았으며 자유의 도시를 근 10일간이나 꽃피게 하였다. 실로 광주인민

봉기는 그 규모와 조직성, 완강성과 치렬성에 있어서 남조선인민들의 반과소민주화투쟁사에 류례없는 대중

광주의 넋은 오늘도...

대해살을 배후조종한 미국은 여전히 남조선에서 주인공세를 하며 지배와 략탈의 울가미를 더욱 조이고있다.

인민들의 생명안전은 아랑곳없이 위험물질이 많은 미국산 소고기기를 대대적으로 수입하는 사대매국행위로 집권의 첫발을 댄 리명박역도는 미국에서 미친소병이 발생한 오늘까지도 각계의 비난과 규탄을 무릅쓰고 미국산 소고기수입을 계속 강행하고있다. 정치, 경제, 문화, 군사 등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를 미국에게 서슴없이 섬겨바친 《실용》패당은 이것도 성

세는 전쟁정계로 한치한치 치달고있다.

상전에게는 삼살개, 동족에게는 미친개가 되어 날뛰는 리명박역적무리들에 의해 남조선인민들이 당하는 고통과 불행은 이루 헤아릴수 없다.

삶의 보금자리를 빼앗긴 사람들의 정당한 투쟁을 무자비하게 탄압하여 불태워 죽이고 초보적인 생명안전을 요구하여 미국산 소고기반대 초불시위투쟁에 떨쳐나선 사람들을 남나로소 가림이 없이, 심지어 찢먹이 어머니까지 다치는대로 탄압하고 철창속에 가둔것이 리명박괴뢰

들의 죄악은 절대로 용서받을수 없다.

지금 보수세력들은 저들이 저지른 만고죄악에 대해 무릎꿇고 사죄할 대신 설맞은 살모사마냥 머리를 뺏뺏이 쳐들고 재집권을 노리고 있다.

《새누리당》이 집권여당으로서 지난 시기 리명박 《정권》과 똑자궁이 하며 저지른 모든 죄악들에 《차별화》의 면사포를 씌워놓고 《부지》간판을 걸고 《정권재창출》을 떠드는것은 그 하나의 실례이다.

이런 반역의 무리들이 또 다시 권력을 장악한다면 남조선사회의 전망은 더욱 암담해질것이다.

이 엄혹한 현실앞에 32년전 자주, 민주, 통일을 웨치다 쓰러진 광주의 영령들이 호곡하고있다.

광주의 넋은 어제도 오늘도 민주자주와 반과소민주화를 부르짖고있다.

남조선인민들은 민족반역무리들의 재집권기도를 철저히 분쇄하고 자주화되고 민주화되는 정치적, 세 계도로 마련함으로써 원한 풀고 쓰러진 광주영령들의 넋을 풀어주어야 한다.

본사기자 김응철



경산리에서 영광의 도전에 첫 벼모를 냈다.

위대한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새로운 주제100년대가 시작되는 력사의 분수령에서 천만군민에게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라는 새로운 출발선언을 하시었다.

길지 않은 문구였다. 하지만은 나라 군대와 인민을 민족자주위업의 최후승리를 위한 총돌격전으로 부르는 위인의 호소였다.

지금 온 겨레는 이 호소를 가슴마다 새겨안고 신심과 락관에 넘쳐 강성부흥의 전성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민족의 숙원인 통일일을 이룩하기 위하여 힘차게 떨쳐나섰다.

백두에서 개척된 민족자주위업은 절세위인들의 헌명한 령도밑에 온갖 시련과 난관을 이겨내며 승리적으로 전진하여왔다.

위대한 김일성주석을 모시어 우리 민족은 주체의 가치, 선군의 가치높이 애국애족위업을 빛나게 개척했고 한 세대에 두 제국주의강적을 타승하고 민족의 운명과 존엄을 수호했다. 그이의 위대한 령도로 이 땅위에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이 일떠섰다.

어버이수령님과 함께 나라와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수호하는 길, 인민의 행복을 마련하는 성스러운 길을 걸으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민족자주위업의 나날 준엄한 시련속에서 선군의 가치를 더욱 높이 드시고 인민군대를 무적의 강군으로 키우시어 강력한 군사적억제력과 경제강국건설의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시었다.

최정에 강군으로 장성강화된 열병대오를 바라보시며 위대한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군사기술적우세는 더는 제국주의자들의

독점물이 아니며 적들이 원자탄으로 우리를 위협공갈하던 시대는 영원히 지나갔다고 하시었다.

우리 조국은 령도는 작지만 그 누구도 무시할수 없는 철벽의 요새, 자위의 성새로 되었다.

조선인민군 창건 80돐에 즈음하여 진행된 조선인민군 제 655련함부대의 종합전술연습은 공화국을 조금이라도 건드리는 자들은 불마당질해버릴수 있는 불패의 군력을 보여주는 축도였다.

련속 포성을 울리며 지축을 흔드는 땅크, 장갑차들, 시별건 불꽃기들을 내뿜는 화력수단들의 장쾌한 폭음을 보고들으며 사람들은 환희와 걱정을 금치 못하시었다.

민족자주위업의 려명기에 시련을 둔 군대와 인민의 일심단결, 무진막강한 군력에 새 세기 산업혁명을 더하면 공화국은 사회주의강성국가로 된다.

공화국은 이제 경제강국만 건설하면 우리 겨레가 것처럼 바라고 바라는 강성국가, 최후승리의 봉우리로 올라서게 된다.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 탄생 100돐경축 열병식에서 축하연설을 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

강성국가건설의 지름길을 밝혀준 지침

지난 4월 15일 경애하는 김정은 최고령도자께서는 어버이수령님 탄생 100돐경축 열병식연설에서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대강을 밝혀주시었다.

일심단결과 불패의 군력에 새 세기 산업혁명을 더하면 그것은 곧 사회주의강성국가이라는 독창적인 명제는 성스러운 주제100년사를 총화하고 새로운 주제100년대에 들어선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에게 사회주의강성국가의 전도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지름길을 명쾌하게 밝혀준 고전적정칙이 된다.

절세위인들의 자주와 선군, 사회주의의 길을 뜻깊고 이어가며 만만시련을 뚫고 인민들이 다시는 허리띠를 조이지 않고 사회주의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리게 하는데서 이보다 더 빠른 지름길은 없다.

천만군민의 일심단결은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위력한 무기이다.

이 세상 그 어느 나라와 민족도 이루어보지 못한 수령 중심의 일심단결을 이루고 그 위력으로 력사의 온갖 풍파를 승리적으로 헤쳐온것은 공화국의 자랑스러운 전통이다.

오늘 공화국은 령도자와 군대와 인민이 하나의 사상과 의지로 굳게 뭉쳐 마음도 슬겘도 언제나 함께 해나가는 화목한 대가정으로 전변되었다. 조선로동당 제 4차 대표자대회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5차회의에서 군대와 인민의 전폭적인 지지와 찬동속에 위대한 장군님을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의 수위에

영원히 높이 모시고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를 조선로동당 제1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 높이 추대한것은 선군조선의 위대한 일심단결의 장엄한 시위였다.

제국주의자들이 천만군민의 일심단결을 허물어려고 별의별 못된짓을 다하고있지만 마치 불속에 지 강철이 더 세계 버리어지듯이 공화국인민들은 수령의 두리에 더욱더 철통같이 뭉치고있다. 최근 남조선의 리명박씨대통령이 우리의 최고존엄을 감히 중상모독하고 대양철 경축행사와 인공지구위성발사 등에 대해 이리저리공작을 벌여온것을 통해서도 여실히 증명되고있다.

일심단결의 기치를 더 높이 추켜들고나가는 여기에 승리와 영광만을 펼쳐온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도 영원히 승승장구할수 있는 근본비결이 있다.

오늘 공화국인민들은 모두다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를 중심으로 하여 서로 팔을 끼고 어깨를 결고 한전호에서 생사운명을 함께 하는 전우가 되어 힘차게 전진해나가고있다.

선군으로 마련되고 나날이 강화되는 공화국의 군력은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믿음직한 군사적담보이다.

오늘 공화국은 적들의 그 어떤 첩첩공도 격퇴할수 있는 현대적인 공격수단과 방어수단들을 다 갖춘 군사강국의 지위에 당당히 올라섰다. 어버이수령님 탄생 100돐경축 열병식이 이것을

뚜렷이 확증해주었다.

하늘땅을 뒤흔들며 보무당당히 김일성광장을 지나가는 무적의 철강대오와 하늘의 매를, 씩씩한 열병종대들을 보면서 온 겨레는 물론 전세계가 우리 조국의 무진막강한 군력에 놀라움을 금치 못해하였다. 미국의 국방장관은 열병식의 위력에 겁을 먹고 요즘은 북조선때문에 밤잠을 자지 못하는 날이 많다고 실로하였다.

나라의 지정학적우치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지만 려강들의 각축전마당으로 무참히 짓밟히던 예제날의 약소국이 오늘 그 어떤 대적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는 당당한 군사강국으로 전변될수 있었던것은 전적으로 백두산천출명장들의 선군령도의 빛나는 결실이다.

제국주의자들의 침에 한 정치군사적대결속에서 사회주의강성국가를 건설하고있고 강군과 전횡으로 세계를 좌우지하려는 지배세력들의 책동이 계속되고있는 오늘 현실적조건과 환경은 이미 마련된 군력에 만족하지 마 더욱 세차게 밀고 그를 더욱 튼튼히 다져나가야 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세 세계 산업혁명의 불길은 새 세기 산업혁명의 불길의 씨앗처럼 가슴에 간직했으나 참되게 꽃피우지 못했고 헤매이던 우천 조완구 선생, 민족의 태양이신 김일성주석의 따사로운 빛이 있어 그도 조국통일을 위한 길에서 인생을 빛나게 살수 있었다.

남조선 《한국독립당》위원장이었던 조완구선생은 1881년에 판포가문에서 태어났다. 그는 21살때 법학전수학교를 졸업하고 고종의 《승훈부내부주사》로서 쓰러져가는 봉건왕조의 관직에 올랐다. 그러나 1905년 일제의 《을사5조약》날조행위를 반대규탄함으로써 하여 판에서 파면당한 후 반일독립운동에 나섰다. 가슴에 품은 애국의 씨앗, 한중이 국화꽃으로 피우리라... 이런 철서를 안해에게 남긴 선생은 애국계몽운동에 적극 참여하였다. 선생은 각종 계몽강연에 연사로 나서는 한편 일본경찰의 눈을 피해가며 격문을 뿌리는데 앞장섰다. 자기의 집까지 팔아 자금을 융통하여 운동자금이나 친우들의 피신자금으로 쓰도록

공화국은 새 세기 산업혁명의 불길, 함남의 불길로 온갖 시련과 난관을 뚫고 인민생활향상에서 커다란 전환을 이룩하며 가까운 앞날에 경제강국으로 진입하게 될것이다.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지름길을 밝힌 강령적지침을 받아안고 새로운 주제100년대의 진군길에 떨쳐나선 천만군민의 기세는 하늘을 찌를듯이 높다. 력사는 정의와 진리의 길을 따라 도도히 굽이쳐나가는 인민의 흐름은 그 무엇으로도 막을수도 멈춰세울수도 없다는것을 보여준다. 조국과 인민을 백전백승의 한길로 이끄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의 헌명한 령도따라 일심단결과 불패의 군력을 더욱 튼튼히 다지고 새 세기 산업혁명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켜나갈 때 우리 겨레가 세세년년 갈망해오던 사회주의강성국가가 현실로 펼쳐지게 될것이다.

이것으로 하여 새 세기 산업혁명은 주제공업의 새로운 질적비약의 전환적분수령으로, 강성부흥으로 폭풍쳐나아가는 우리 조국의 전진속도를 백배해주는 력사적사변으로 된다.

세앗이 싹트고 자라 꽃이 피고 열매를 맺자면 해빛이 있어야 한다.

민족적해방과 통일독립을 위한 애국의 마음을 인생의 씨앗처럼 가슴에 간직했으나 참되게 꽃피우지 못했고 헤매이던 우천 조완구 선생, 민족의 태양이신 김일성주석의 따사로운 빛이 있어 그도 조국통일을 위한 길에서 인생을 빛나게 살수 있었다.

남조선 《한국독립당》위원장이었던 조완구선생은 1881년에 판포가문에서 태어났다.

그는 21살때 법학전수학교를 졸업하고 고종의 《승훈부내부주사》로서 쓰러져가는 봉건왕조의 관직에 올랐다.

그러나 1905년 일제의 《을사5조약》날조행위를 반대규탄함으로써 하여 판에서 파면당한 후 반일독립운동에 나섰다. 가슴에 품은 애국의 씨앗, 한중이 국화꽃으로 피우리라... 이런 철서를 안해에게 남긴 선생은 애국계몽운동에 적극 참여하였다. 선생은 각종 계몽강연에 연사로 나서는 한편 일본경찰의 눈을 피해가며 격문을 뿌리는데 앞장섰다. 자기의 집까지 팔아 자금을 융통하여 운동자금이나 친우들의 피신자금으로 쓰도록

공화국은 새 세기 산업혁명의 불길, 함남의 불길로 온갖 시련과 난관을 뚫고 인민생활향상에서 커다란 전환을 이룩하며 가까운 앞날에 경제강국으로 진입하게 될것이다.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지름길을 밝힌 강령적지침을 받아안고 새로운 주제100년대의 진군길에 떨쳐나선 천만군민의 기세는 하늘을 찌를듯이 높다. 력사는 정의와 진리의 길을 따라 도도히 굽이쳐나가는 인민의 흐름은 그 무엇으로도 막을수도 멈춰세울수도 없다는것을 보여준다. 조국과 인민을 백전백승의 한길로 이끄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의 헌명한 령도따라 일심단결과 불패의 군력을 더욱 튼튼히 다지고 새 세기 산업혁명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켜나갈 때 우리 겨레가 세세년년 갈망해오던 사회주의강성국가가 현실로 펼쳐지게 될것이다.

이것으로 하여 새 세기 산업혁명은 주제공업의 새로운 질적비약의 전환적분수령으로, 강성부흥으로 폭풍쳐나아가는 우리 조국의 전진속도를 백배해주는 력사적사변으로 된다.

세앗이 싹트고 자라 꽃이 피고 열매를 맺자면 해빛이 있어야 한다.

민족적해방과 통일독립을 위한 애국의 마음을 인생의 씨앗처럼 가슴에 간직했으나 참되게 꽃피우지 못했고 헤매이던 우천 조완구 선생, 민족의 태양이신 김일성주석의 따사로운 빛이 있어 그도 조국통일을 위한 길에서 인생을 빛나게 살수 있었다.

남조선 《한국독립당》위원장이었던 조완구선생은 1881년에 판포가문에서 태어났다.

그는 21살때 법학전수학교를 졸업하고 고종의 《승훈부내부주사》로서 쓰러져가는 봉건왕조의 관직에 올랐다.

그러나 1905년 일제의 《을사5조약》날조행위를 반대규탄함으로써 하여 판에서 파면당한 후 반일독립운동에 나섰다. 가슴에 품은 애국의 씨앗, 한중이 국화꽃으로 피우리라... 이런 철서를 안해에게 남긴 선생은 애국계몽운동에 적극 참여하였다. 선생은 각종 계몽강연에 연사로 나서는 한편 일본경찰의 눈을 피해가며 격문을 뿌리는데 앞장섰다. 자기의 집까지 팔아 자금을 융통하여 운동자금이나 친우들의 피신자금으로 쓰도록

공화국은 새 세기 산업혁명의 불길, 함남의 불길로 온갖 시련과 난관을 뚫고 인민생활향상에서 커다란 전환을 이룩하며 가까운 앞날에 경제강국으로 진입하게 될것이다.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지름길을 밝힌 강령적지침을 받아안고 새로운 주제100년대의 진군길에 떨쳐나선 천만군민의 기세는 하늘을 찌를듯이 높다. 력사는 정의와 진리의 길을 따라 도도히 굽이쳐나가는 인민의 흐름은 그 무엇으로도 막을수도 멈춰세울수도 없다는것을 보여준다. 조국과 인민을 백전백승의 한길로 이끄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의 헌명한 령도따라 일심단결과 불패의 군력을 더욱 튼튼히 다지고 새 세기 산업혁명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켜나갈 때 우리 겨레가 세세년년 갈망해오던 사회주의강성국가가 현실로 펼쳐지게 될것이다.

이것으로 하여 새 세기 산업혁명은 주제공업의 새로운 질적비약의 전환적분수령으로, 강성부흥으로 폭풍쳐나아가는 우리 조국의 전진속도를 백배해주는 력사적사변으로 된다.

세앗이 싹트고 자라 꽃이 피고 열매를 맺자면 해빛이 있어야 한다.

민족적해방과 통일독립을 위한 애국의 마음을 인생의 씨앗처럼 가슴에 간직했으나 참되게 꽃피우지 못했고 헤매이던 우천 조완구 선생, 민족의 태양이신 김일성주석의 따사로운 빛이 있어 그도 조국통일을 위한 길에서 인생을 빛나게 살수 있었다.

남조선 《한국독립당》위원장이었던 조완구선생은 1881년에 판포가문에서 태어났다.

그는 21살때 법학전수학교를 졸업하고 고종의 《승훈부내부주사》로서 쓰러져가는 봉건왕조의 관직에 올랐다.

그러나 1905년 일제의 《을사5조약》날조행위를 반대규탄함으로써 하여 판에서 파면당한 후 반일독립운동에 나섰다. 가슴에 품은 애국의 씨앗, 한중이 국화꽃으로 피우리라... 이런 철서를 안해에게 남긴 선생은 애국계몽운동에 적극 참여하였다. 선생은 각종 계몽강연에 연사로 나서는 한편 일본경찰의 눈을 피해가며 격문을 뿌리는데 앞장섰다. 자기의 집까지 팔아 자금을 융통하여 운동자금이나 친우들의 피신자금으로 쓰도록

역사문화유적을 돌아보시면서

언제인가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오랜 력사문화유적인 박천의 심원사를 찾으시었다. 오늘도 천여년전의 모습이 그대로 살아있는 심원사는 우리 선조들의 뛰어난 재능과 높은 건축술을 증경하는 귀중한 민족문화유산이다. 황해남도 구월산의 굴이굴이와 계곡마다에 인민의 유년지로 변모시키고 도록 크나큰 로고와 심혈을 기울이신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의 발자취가 깃들여있다. 몇해전 어느날이었다. 새로 번듯하게 꾸러지고있는 명승지를 찾으시고 건설장의 곳곳을 돌아보신 장군님께서는 나서자란 곳이 아무리 아름답

조국 내 나라 제일로 좋아

어느해의 5.1절날이었다. 그날 위대한 장군님께서 어버이수령님께서 언제인가 외국방문의 길에서 노래 《내 나라 제일로 좋아》를 부르시는데 대하여 회고하시었다. 그때 수령님께서는 노래

명산에 비긴 조국애

다고 하여도 사람들의 보배로운 손길이 닿지 않고 가꾸지 않는다면 그 아름다움도 세월의 락엽속에 묻히고말것이라고 하시었다. 그러시면서 구월산은 어버이수령님의 숭고한 뜻과 김형직선생님의 혁명사적이 깃들여있고 이 땅을 피로써 지키고 가꾸어온 우리 군

조국 내 나라 제일로 좋아

미국에 정착 환멸을 느낀 선생은 김구, 김구식선생을 비롯한 인사들과 함께 남조선집권세력의 《단선단정》을 형성하고서 독립의 일념만을 애도 계몽연단에서 기움을 토한 그였다. 상해임시정부수립에도 참여하였던 《한국독립당》 창당의 주요인물로도 나섰던 선생은 《한국독립당》의 상무위원, 임시정부의 국무위원, 내무총장, 재무부장

조국 내 나라 제일로 좋아

정신적고뇌로 방황하던 조완구선생을 비롯한 인사들에게 통일독립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는 해빛이 비쳐들었다. 그는 겨레가 항일의 전설적 영웅, 민족의 태양으로 우러르는 위대한 김일성장군님께서 1948년 3월 남조선의 여러 정당, 단체의 지도자들에게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조선 정당, 사회단체 대표자련석회의에 참가할때 대한 내용을 담은 초창장을 펴우도록 하신것이였다. 이에 격동된 선생은 1948년 4월 김구, 김구식, 홍명희, 조소앙 등 여러 인사들과 함께 《통일독립운동자협의회》를 결성하는데 앞장섰으며 그후 《한독당》 대표들과 민족자주련맹 대표들, 우

조국 내 나라 제일로 좋아

미국에 정착 환멸을 느낀 선생은 김구, 김구식선생을 비롯한 인사들과 함께 남조선집권세력의 《단선단정》을 형성하고서 독립의 일념만을 애도 계몽연단에서 기움을 토한 그였다. 상해임시정부수립에도 참여하였던 《한국독립당》 창당의 주요인물로도 나섰던 선생은 《한국독립당》의 상무위원, 임시정부의 국무위원, 내무총장, 재무부장

조국 내 나라 제일로 좋아

정신적고뇌로 방황하던 조완구선생을 비롯한 인사들에게 통일독립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는 해빛이 비쳐들었다. 그는 겨레가 항일의 전설적 영웅, 민족의 태양으로 우러르는 위대한 김일성장군님께서 1948년 3월 남조선의 여러 정당, 단체의 지도자들에게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조선 정당, 사회단체 대표자련석회의에 참가할때 대한 내용을 담은 초창장을 펴우도록 하신것이였다. 이에 격동된 선생은 1948년 4월 김구, 김구식, 홍명희, 조소앙 등 여러 인사들과 함께 《통일독립운동자협의회》를 결성하는데 앞장섰으며 그후 《한독당》 대표들과 민족자주련맹 대표들, 우

조국 내 나라 제일로 좋아

정신적고뇌로 방황하던 조완구선생을 비롯한 인사들에게 통일독립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는 해빛이 비쳐들었다. 그는 겨레가 항일의 전설적 영웅, 민족의 태양으로 우러르는 위대한 김일성장군님께서 1948년 3월 남조선의 여러 정당, 단체의 지도자들에게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조선 정당, 사회단체 대표자련석회의에 참가할때 대한 내용을 담은 초창장을 펴우도록 하신것이였다. 이에 격동된 선생은 1948년 4월 김구, 김구식, 홍명희, 조소앙 등 여러 인사들과 함께 《통일독립운동자협의회》를 결성하는데 앞장섰으며 그후 《한독당》 대표들과 민족자주련맹 대표들, 우

주체사상신봉자들이 투쟁강령

방글라데슈단체 성명 발표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 주제101(2012)년 4월 6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인원들과 하신 담화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의 영원한 총비서로 높이 모시고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해나가지자》와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 탄생 100돐경축 열병식에서 하신 연설과 관련하여 방글라데슈주체사상연구소가 7일 성명을 발표하였다.

김정은동지의 력사적 인 로작들은 새로운 주제 100년대의 휘황한 앞길을 밝힌 강령적지침이며 조선인민뿐 아니라 전세계 주체사상신봉자들이 즐겨보면서 어둠이 사라져야 할 투쟁강령이다. 주체혁명위업의 위대한 계승자이신 김정은동지의

성명은 경애하는

계승자이신 김정은동지의

애국의 뜻 꽃피워주시여

31년간의 이국명망살이를 끝내고 조국에 귀국할 때 선생은 령정의 요인이었으나 귀국할수 있다는 미군정의 허가를 받아야만 하였다. 가슴속의 모든 슬픔을 이겨내며 마침내 해방을 맞이한 선생은 이 국화꽃이 철을 맞아 꽃이 피듯이 우리 가슴에 지닌 애국심의 씨앗도 꽃으로 피어나리라 믿어마지 않는다고 확신을 표명하였다. 그러나 자주독립을 바라던 선생의 애국의 씨앗은 싹들수 없었다. 남조선에서는 미군정이 판을 치고 매국매족세력은 미국을 등에 업고 《단선단정》을 꿈꾸며 정치권에만 열을 올리고있었다.

본사기자

애국의 뜻 꽃피워주시여

31년간의 이국명망살이를 끝내고 조국에 귀국할 때 선생은 령정의 요인이었으나 귀국할수 있다는 미군정의 허가를 받아야만 하였다. 가슴속의 모든 슬픔을 이겨내며 마침내 해방을 맞이한 선생은 이 국화꽃이 철을 맞아 꽃이 피듯이 우리 가슴에 지닌 애국심의 씨앗도 꽃으로 피어나리라 믿어마지 않는다고 확신을 표명하였다. 그러나 자주독립을 바라던 선생의 애국의 씨앗은 싹들수 없었다. 남조선에서는 미군정이 판을 치고 매국매족세력은 미국을 등에 업고 《단선단정》을 꿈꾸며 정치권에만 열을 올리고있었다.

본사기자

애국의 뜻 꽃피워주시여

31년간의 이국명망살이를 끝내고 조국에 귀국할 때 선생은 령정의 요인이었으나 귀국할수 있다는 미군정의 허가를 받아야만 하였다. 가슴속의 모든 슬픔을 이겨내며 마침내 해방을 맞이한 선생은 이 국화꽃이 철을 맞아 꽃이 피듯이 우리 가슴에 지닌 애국심의 씨앗도 꽃으로 피어나리라 믿어마지 않는다고 확신을 표명하였다. 그러나 자주독립을 바라던 선생의 애국의 씨앗은 싹들수 없었다. 남조선에서는 미군정이 판을 치고 매국매족세력은 미국을 등에 업고 《단선단정》을 꿈꾸며 정치권에만 열을 올리고있었다.

본사기자

애국의 뜻 꽃피워주시여

31년간의 이국명망살이를 끝내고 조국에 귀국할 때 선생은 령정의 요인이었으나 귀국할수 있다는 미군정의 허가를 받아야만 하였다. 가슴속의 모든 슬픔을 이겨내며 마침내 해방을 맞이한 선생은 이 국화꽃이 철을 맞아 꽃이 피듯이 우리 가슴에 지닌 애국심의 씨앗도 꽃으로 피어나리라 믿어마지 않는다고 확신을 표명하였다. 그러나 자주독립을 바라던 선생의 애국의 씨앗은 싹들수 없었다. 남조선에서는 미군정이 판을 치고 매국매족세력은 미국을 등에 업고 《단선단정》을 꿈꾸며 정치권에만 열을 올리고있었다.

본사기자

애국의 뜻 꽃피워주시여

31년간의 이국명망살이를 끝내고 조국에 귀국할 때 선생은 령정의 요인이었으나 귀국할수 있다는 미군정의 허가를 받아야만 하였다. 가슴속의 모든 슬픔을 이겨내며 마침내 해방을 맞이한 선생은 이 국화꽃이 철을 맞아 꽃이 피듯이 우리 가슴에 지닌 애국심의 씨앗도 꽃으로 피어나리라 믿어마지 않는다고 확신을 표명하였다. 그러나 자주독립을 바라던 선생의 애국의 씨앗은 싹들수 없었다. 남조선에서는 미군정이 판을 치고 매국매족세력은 미국을 등에 업고 《단선단정》을 꿈꾸며 정치권에만 열을 올리고있었다.

본사기자

애국의 뜻 꽃피워주시여

31년간의 이국명망살이를 끝내고 조국에 귀국할 때 선생은 령정의 요인이었으나 귀국할수 있다는 미군정의 허가를 받아야만 하였다. 가슴속의 모든 슬픔을 이겨내며 마침내 해방을 맞이한 선생은 이 국화꽃이 철을 맞아 꽃이 피듯이 우리 가슴에 지닌 애국심의 씨앗도 꽃으로 피어나리라 믿어마지 않는다고 확신을 표명하였다. 그러나 자주독립을 바라던 선생의 애국의 씨앗은 싹들수 없었다. 남조선에서는 미군정이 판을 치고 매국매족세력은 미국을 등에 업고 《단선단정》을 꿈꾸며 정치권에만 열을 올리고있었다.

본사기자

본사기자 명금릉

단히 높았다고 하시었다. 그러시면서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를 가지고있는 우리 나라에는 예나 가나 력사문화유적이 많다고, 우수한 민족문화유산을 귀중히 여기고 훌륭히 계승발전시켜 우리 인민들에게 조선민족의 긍지와 자부심을 북돋아주어야 한다고 강조하시었다. ... 내 사는 내 나라 제일로 좋아

고영수

《참된 한애국인 조국통일에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이 명언은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에게 참된 애국의 길을 밝혀주고 그들을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 적극 떨쳐나서도록 힘차게 고무하는 삶과 투쟁의 지침이다. 나라와 민족의 운명속에 민족성원 각자의 삶과 운명이 있고 나라와 민족의 부강번영속에 매 개인의 행복과 미래가 있다. 사람이 나라를 잃으면 상가지 집 개만도 못한 처지에 굴러떨어지게 되고 민족이 자주성을 지닐때만 노예의 운명을 강요당하게 된다. 이것은 수난많은 우리 민족사와 오늘날 남조선의 현실이 새겨주는 진리이다. 불타는 애국심을 안고 나라와 민족의 부강번영을 위해 헌신할 때 매 개인의 운명도, 나라와 민족의 운명도 참담하게 개척할수 있다. 여기에 애국은 그 어떤 의무기 전 에 인간의 삶과, 운명개척을 위한 사활적인 과제로 되는것이다. 분열된 강토에서 살고있는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참된 애국은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속에 있다. 진정으로 나라와 민족의 운명에 대하여 생각하고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그가 누구이든 사상과 리념, 계층의 차이를 뛰어넘어 조국통일을 위한 애국투쟁에 몸을 내대야 한다.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겨레의 애국투쟁은 시련을 동반하는 간고한 투쟁이다. 우리 민족을 영원히 돌로 갈라놓으려는 외세의 민족분열책동과 남조선 보수집권 세력의 반통일적인 사대매국책동

에 의해 조국통일위업실현의 앞길에는 의연히 난관과 장애가 가로 놓여있다. 집권초기부터 북남공동선언들을 전면부정하며 동족대결과 반통일에 퍼논이 되여온 리명박패당은 지난해 12월 대국상을 당한 동족의 아픈 가슴에 칼질을 하는 대역죄를 짓고도 모자라 최근에는 공화국의 최고존엄까지 감히 중상모독하는 특대형도발행위를 련이어 감행하고있다. 안팎의 반통일세력의 도전을 단호히 짓부셔 조국통일의 문을 열어나가는것은 현시기 우리 민족 앞에 나선 지상의 과제이다. 남조선의 남북공동선언실천권대는 얼마전에 발표한 성명에서 6.15, 10.4선언을 지지하는 모든 세력이 굳게 단합하여 남조선주민군을 이 땅에서 내몰며 반통일전쟁책동에 미쳐날뛰는 리명박 《정권》을 뒤집어엎는것이 참된 애국애족의 길이라고 강조하였다. 남조선의 각계층 인민들은 지금 참된 애국은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속에 있다는 진리를 새겨안고 통일을 위한 애국투쟁에 떨쳐나서고있다. 애국의 열망을 안고 조국통일의 길을 기어이 열어나가는 우리 겨레의 지향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내외 반통일세력을 이 땅에서 쓸어버리고 조국통일의 력사적숙원을 이루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 한사락 같이 떨쳐나서야 할것이다. 본사기자 김유정

이 땅의 자주통일은 통일 의 주제를 이루는 온 겨레의 거족적인 노력을 떠나서 이루어질수 없다. 특히 자라나는 새 세대들에게 통일의식을 심어주는것은 오늘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설것이다. 하기에 나는 얼마전 중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하는 아들들 데리고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을 찾았다. 충성의 다리를 건너 얼마쯤 가니 통일거리일구에 웅장하게 솟은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이 보였다. 통일을 바라는 해내외동포들의 뜨거운 지성에 떠받들려 일떠선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 그동안 여러차례 이곳을 찾아보곤 하였지만 아들과 같이 기념탑을 찾은 이날의 결음은 더우기 감회로운것이였다. 학교때 이곳에 와본적 있다는 아들은 마치고 여기에 처음 온듯 한 기분으로 웅장화려하고 특색있게 건립된 기념탑의 세부들에 이르러 가까지 간간히 살피며 나에게 느닷없이 질문도 던지곤 하였다. 우리는 기념탑주변에 세워진 어버이수령님의 조국통일명제비앞에 이르러 오래도록 발걸음을 떼지 못하였다. 조국을 통일하려면 그가 북에 살건 남에 살건 해외에 살건 관계없이 온 겨레가 통일운동에 떨쳐나서야 하며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하나로 굳게 뭉쳐야 한다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앞에서

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한 조국통일사상과 불보다 뜨거운 민족애, 통일업에 쏟아부으신 불멸의 업적과 경륜이 다 집대성되여 있다. 기념탑은 오늘도 너와 나, 전 세대와 새 세대,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를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필생의 념원과 유훈인 조국통일위업실현으로 부르짖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절절히 말씀하신바와 같이 어버이수령님의 숭고한 뜻을 이어 조국통일위업을 실현하는것은 우리모두의 혁명적무이고 의리이며 우리 세대에 맡겨진 성스러운 민족적임무이다. 그렇다. 그래서 철부지로만 생각되던 아들에도 오늘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을 돌아보며 어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유훈대로 조국을 통일하는것을 현 세대의 사명감으로, 의무로 새겨안은것이 아니라! 《신군사대에 사는 우리 젊은이들은 이렇게 조국통일을 자신들의 숭고한 사명감으로 스스로 새겨안을줄야 하는데 나는 지금껏 그들을 철부지처럼 생각하였으니...》 《그렇기는 한데... 하지만 새 세대들에게 올바른 통일관

을 심어주고 그들이 경애하는 장군님의 조국통일유훈을 받들어 조국통일위업을 이룩하기 위해 적극 투쟁하도록 일깨워주고 부단히 분발시켜야 할 무거운 책임감이 지워져있는것이 아니겠습니까. 허허...》 통일애국투사는 80여명인데도 헬색좋은 얼굴에 웃음을 띄우고 이렇게 말하는것이였다. 나는 그의 말에 전적인 동감을 표시하였다. 《오늘 여기 기념탑을 찾은 보람이 참으로 큼니다.》 우리는 서로 소리내며 웃으며 통일을 마중가듯 힘차게 발걸음을 옮기었다. 강호영



《을사오적》도 낫을 붉힐 특등친일행위

최근 남조선보수당국이 그 누구의 《위협》을 운운하며 일본과 《군사비밀보호협정》과 《상호군수지원협정》을 체결하려는것과 관련하여 여론의 이목이 집중되고있다. 남조선의 민주통합당을 비롯한 야당들과 반일단체들, 광범한 각계층은 련일 시위와 집회를 열고 《동족살상을 위한 반일추행위》, 《〈한〉미일3각군사동맹을 완성하려는 위험천만한 군사적합동》, 《백년속적 일본군대를 끌어들이는 매국행위》 등으로 강하게 반대배격해나서고있다. 지어 보수세력까지도 주변나라들을 자극하고 《대선》에서 제정권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수 있다고 하면서 《군사협정의 철회》를 내걸고있으며 중국과 로씨야 등 주변나라들도 경계심을 보이고있다. 바빠맞은 남조선보수당당은 군사협정들이 《정보교류》와 《군수지원》에 한정된것이라느니 뭐니 하고 변명하고있지만 여론들은 이번 협정체결이 일본과의 본격적인 군사협력화대의 기초로 되고 동북아시아에 신냉전을 초래하게 될것이라고 평가하고있다. 이번에 남조선보수당국이 일본과의

군사협정체결을 강행하려고 하는것은 최근 내외에 파시된 공화국의 막강한 군사적위력에 걸맞게 미국은 물론 일본의 군사적합까지 벌여 동족을 완성하여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에서 패권적지위를 차지해보려는 미국에 아무굴종하기 위해서이다. 이제 군사협정들이 체결되게 되면 남조선당국은 지난 시기 미국을 매개로 하여 진행해온 일본과의 군사협력과 공동행동을 직접적이며 공개합법적인 방법으로 본격추진할수 있는 법적기초를 가지게 되며 미국의 오랜 야망이었던 침략적인 《3각군사동맹》 완성의 토대가 마련되게 된다. 이것은 공화국에 대한 또 하나의 정치군사적도발이며 미, 일에 추종하여 동북아시아에 새로운 긴장국면, 신냉전을 몰아오는 위험천만한 사태이다. 지난 세기초 우리 나라를 비롯한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이 열강들의 침략에 짓밟히고 피흘린 뼈저린 교훈을 력사는 아직도 특독히 새기고있다. 그중에서도 일장기를 펴리며 피를 은 공화국에 조선을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인민들을 무참히 짓밟은 일본의

야만행위는 오늘도 사람들의 격분을 불러일으키고있다. 그런데도 리명박을 비롯한 남조선보수당당은 이번 군사협정체결로 일본에 제침의 길을 활짝 열어주려 하고있으니 이 얼마나 쓸개빠진 망종인가. 얼마 후이면 조선동해와 서해, 남해에 일본 《자위대》 합성들이 일장기를 휘날리며 밀려들게 되고 남조선땅은 《자위대》의 군화발에 짓밟히게 될것이다. 미군강점하의 남조선에 일본 《자위대》 무력까지 끌어들이려는 리명박패당이야말로 《을사오적》도 낫을 붉힐 특등친일매국노가 아닐수 없다. 공화국은 물론 중국과 로씨야와 과녁으로 하고있는 미, 일, 남조선의 《3각군사동맹》, 아시아판 《나토》도 눈앞의 현실로 다가왔다. 이로써 동북아시아에서의 새로운 군비경쟁과 긴장국화, 군사적대결과 충돌은 더는 피할수 없는것으로 되었다. 현실은 리명박패당을 그대로 두고서는 우리 겨레가 외세의 침략과 전쟁위협에서 벗어날수 없으며 아시아지역인민들도 결코 편안할수 없다는것을 특독히 보여주고있다. 리지성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대답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은 리명박역도가 최근 중국, 일본, 남조선회담에서 북을 약탈하게 걸고선것과 관련하여 17일 조선중앙통신사가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며칠전 리명박역도가 중국을 행하하여 중국, 일본, 남조선회담에서 북의 핵실험과 추가도발을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된다고 하면서 《긴밀한 대책》을, 《효과적인 대응》이니 뭐니 하며 못되게 놀아냈다. 역도는 공동성명에 우리를 걸고선 내용을 집어넣어보

려고 발악하였는가 하면 여기저기를 찾아다니며 우리를 쫓아내는 악담을 쳤다. 리명박역도가 그 소굴에서 극악무도한 대역죄를 일삼다 못해 밖에 나가서까지 악담질을 해댄것은 자기가 얼마나 지독한 대결광선자이며 천하에 비렬하고 추후한 역적인가를 스스로 보여준것으로 되었다. 도대체 6.15를 뒤집어엎으며 동족에게 도발해나선것은 누구이고 조선서해에서 련이어 불침을 터뜨린것 또한 누구이며 그것으로도 성차지 않아 나중에 우리의 최고존엄까지 중상모독하여

서까지 역겨운 추태를 부렸겠는가. 남조선안에서 이리저리 물리쳐 공격도 못하는 주제에 부끄러울 줄 모르고 밖을 싸다니며 그 누구를 걸고 아무리 개나발을 불어대며 소란을 피워보았겠 열을것은 아무것도 없다. 역도가 그 누구의 《도발》이니 뭐니 하며 발광할수록 세상사람들의 혐오감만을 더욱 자아낼뿐이다. 리명박역도가 아무리 발악해도 립종의 시각은 더욱 앞당겨지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대결망상에 사로잡힌 호전광들을 단죄

조국통일법민족련합 남측본부가 9일 성명을 발표하여 동족대결망상에 사로잡혀 외세의 동맹강화에 미쳐날뛰는 호전광들을 단죄하였다. 성명은 남조선과 일본이 군사협정을 체결하려는데 대해 폭로하였다. 일본은 40여년간 조선을 강점하고 우리 민족에게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강요한 침략자, 략탈자라고 성명은 지적하였다. 성명은 최근 미국이 남조선, 일본과의 《3각군사동맹》 조약을 서두르며 일본을 반공화국전쟁소동의 돌격대로 내세우고있다고 비난하였다. 이러한 때 리명박이 일본과의 군사동맹강화책동에 매달

리는것은 조선반도정세를 더는 수습할수 없는 단계로 몰아넣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것이라고 성명은 밝혔다. 성명은 리명박 《정권》이 반공화국대결소동과 특대형도발행위를 일삼으며 력대 독재자들도 감히 상상 못한 일본과의 군사동맹강화책동에 미쳐몰아치고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리명박은 대결망상에서 깨어나야 한다. 일본과의 군사협정체결을 당장 중지하고 부질없는 도발행위를 중지하라. 조국통일법민족련합 남측본부는 남조선일민군사협정체결책동을 단호히 규탄하며 거족적인 리명박심판투쟁에 떨쳐나설것이다.

군사협정체결책동중지를 요구

남조선의 항일독립운동단체련합회와 《한일협정체결상국민행동》이 11일 조선반도에 전진위기를 몰아오려는 호전광들의 일본과의 군사협정체결책동을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국민들의 한결같은 반대배격에도 불구하고 호전광들이 일본과 군사협정을 체결하려고 책동하고있는데 대해 언급하였다. 이것은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겨레의 지향과 요구에 역행할뿐아니라 조선반도에 전쟁위기를 몰아오는 위험천만한 망종이라고 성명은 단죄하였다. 성명은 1965년 미국의 조종하에 박정희군사독재 《정권》이 강행한 일본과의 《협정》체결로 인해 일본군위안부범죄 등 과거 일본

이명박이 왜놈을 도와

이 우리 민족에게 저지른 죄악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받아야 할 수많은 문제들이 가로막혔다고 비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전광들이 일본과의 군사동맹강화책동에 매달리고있다고 성명은 규탄하였다. 조선반도를 전쟁의 불도그니에 또다시 몰아넣으려는 리명박호전세력은 력사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한다는것을 특독히 알아야 할것이라고 성명은 경고하였다. 본사기자

밖에서도 대결타령

의 대강인 북남공동선언들을 전면부정하며 동족대결에 혈안이 되어왔다. 모략적인 《천안》호사건과 연평도사격도발 등으로 북남관계를 풍지박산내고 외세와 야합한 북침책동생장소 등으로 민족의 머리에 열핵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오고있다. 특히 천하대명의 무리들인 리명박역적패당은 민족의 대국상을 모독하고 크나큰 슬픔을 감겨있는 동족에게 총부리를 내대는 극악무도한 대역죄를 저지르고도 모자라 공화국의 최고존엄

을 감히 중상모독하는 특대형범죄행위를 거리낌없이 저지르는데까지 이르렀다. 최근에도 역적패당은 온 겨레와 세계의 커다란 관심을 끌고 계속 거행된 태양절 100돐 경축행사와 관련하여 그 무슨 《잔치비용》이요 뭐요 하면서 북이 막대한 자금을 퍼부었다느니, 그 돈이민 식량을 몇몇분 해결할수 있었을것이라느니 뭐니 하며 주제넘은 악담질을 해냄으로써 인간이기를 그만둔 시대의 추물들임을 여실히 드러냈다. 반민족적, 반인민적인 죄악으로 민심의 저주와 규탄을 받고 심판대우에 오르게 된 역적패당이 동족을 걸고들며 발광할수록 세상사람들의 혐오감만을 더욱 자아낼뿐이다. 리명박역도가 민족앞에 저지른 만고대역죄에 대한 공화국 천만국민의 서슬푸른 분노와 내외의 규탄여론앞에 만신창이 된 제 체면을 조금이라도 유지하고 극악무도한 대결책동을 합리화해보려고 필사의 발악을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리어금



리명박은 살아남지 못한다

재미동포 언론인이 강조 이길수 없는 수령으로 몰아갔다고 단죄하였다. 리명박은 결코 살아남지 못할것이라고 하면서 글은 해표하였다. 글은 우리 민족이 외세에 의해 돌로 갈라진 때로부터 7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지금까지도 북남관계가 악화된적은 일찌기 없었다고 지적하였다. 리명박패당이 반공화국군살책동에 광분하며 전쟁위기를 고조시켜 정세가 예측할수 없는 심각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고 글은 주장하였다. 글은 집권초기부터 동족대결을 추구해온 리명박패당이 민족의 대국상에 칼질하고 또다시 북의 최고존엄을 중상모독하며 북남관계를 돌



전 당 대회는 무엇을 보여주는가

지난 15일 남조선에서는 당대표와 5명의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새누리당》 전당 대회가 진행되었다. 여기에서는 예견했던대로 《신천박》으로 불리우는 황우려가 당대표로 되었으며 친박근혜파인물 4명이 최고위원으로 선출되었다. 그러면 이번엔 진행된 《새누리당》 전당대회 결과는 무엇을 보여주는가 하는 것이다.

그 하나는 《새누리당》이 박근혜의 시종당, 총복당, 친위당으로 완전히 전락됨으로써 그의 《대통령후보》 독주체제가 무너져버렸다는 것이다.

알려진 것처럼 박근혜가 《대권》 꿈을 실현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나서기 시작한 것은 10여년전인 2001년이였다.

하지만 그때 박근혜는 당시 《한나라당》을 장악하고 있던 리희창에게 물려져 《대통령후보》가 되기는커녕 당에서 쫓겨나달라는 탈당하지 않았던 안티였다. 그후 다시 《한나라당》에 들어가 2007년 《대통령후보경선》에 또다시 나섰으나 이번에는 《경제살리기》를 《공약》으로 내건 리명박이때문에 패배자의 손잔만

마시었다. 두번의 실패로 박근혜가 얻은 결론은 권력야심을 실현하자면 보수여당을 《사당화》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박근혜는 지난해 12월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직을 맡은 기회를 리용하여 이에 본격적으로 달려들었다. 우선 비상대책위원회를 자기의 측근인물들로 임명하였으며 《쇄신》의 명목밑에 친리명박계인물들과 자기의 적수로 될수 있는자들의 측근인물들을 《총선후보공천》에서 대대적으로 잘라버렸다. 결과 올해 4월 진행된 19대 《총선》에서 당선된 《새누리당》 국회의원 《중진박파인물들이 차지하게 되었다. 또한 5월 9일 진행된 당내선거에서는 박근혜의 《경제교사》로 불리우는 리한수가 새 원내대표의 자리에 앉았다. 결국 당대표와 원내대표를 비롯한 주요당직과 《국회》의원파인수를 친박파인물들이 차지하게 됨으로써 《새누리당》은 박근혜의 개인당으로 완전히 변하게 되었다.

새로 선출된 《새누리당》의 대표, 최고위원, 원내대표라는 자들은 벌써부터 《앞으로 모든 《국회》 활동을 박근혜 《정권창출》에 복종》 시키며 《강한 돌파력을 발휘》 하여 《박근혜의 《대선》 승리를 견인》 하겠다는 식으로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에 극성을 부리고있다. 가련한것은 김문수, 정몽준, 리재오, 김태호 등 여당의 《대선후보》로 나선 인물들이 《박근혜화》된 《새누리당》에게서 철저히 무시당하고있는것이다. 대표적으로 이들은 당에서 《대선후보경선》을 《완전 국민경선제》로 실시할것을 주장하고있으나 박근혜는 듣는듯마는듯 하고있으며 최고위원으로 선출된 친박계인물들이 정우택, 유기준과 원내대표 리한수는 《대선》을 얼마 남지않고 있는 시점에서 바꾸면 많은 혼란이 있다.》면서 내놓고 반대하고 있다. 결국 이번엔 진행된 《새누리당》 전당대회는 《새누리당》이 철저히 《대통령후보》 박근혜의, 박근혜를 위한 당면들기로 진행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있다. 다음으로 《새누리당》 전

당대회가 시사하고있는것은 남조선에서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새로운 독재권력이 시작되고있다는것이다. 알다싶이 박근혜는 군사쿠테타로 《정권》을 가로채고 18년간이나 장기집권과 《유신》 독재를 실시해온 박정희의 딸이다. 예비의 독재기질을 그대로 물려받아서인지 박근혜는 다른 사람의 의견과 고충을 알리지 않고 자기의 요구와 지시를 병적으로 강요하며 정치적적수에 대해서 무자비하게 복수하는것과 같은 기질로 사람들의 말밖에 오르고있다. 이번 전당대회 전과정에서도 박근혜는 당권과 《대권》을 분리한다는 원칙을 내세우면서 자기는 《대권주자》이므로 당내부문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코를 세웠다. 하지만 《새누리당》안에서는 이미 박근혜에게 승인을 받았다는 친박계지도부명단이 공공연히 돌아갔으며 친리명박계인물들속에서는 팬히 밀게 보여 목이 떨어지지 않았으면 전당대회후보로 나서지 말라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다. 그러다보니 박근혜의 눈치만 보면서 누구도 함부로 당

대회후보로 나서지 못하였으며 전당대회 며칠전에 나선 인물들도 9명중 7명이 친박계에서 전당대회는 해보나마나가 되어버렸다. 하기에 남조선언론들은 물론 여당의 《대선》 예비후보들까지도 《새누리당》 전당대회과정은 박근혜의 야심적, 제왕적기질을 충분히 보여주었다고 하면서 앞으로 그의 독단치기와 독단정치로 남조선에는 민주주의의 암흑이 드리울수 있다고 내놓고 비난하고있다. 총체적으로 놓고보면 이번 《새누리당》 전당대회과정은 《유신》으로부터 물려받은 박근혜의 독재자 기질을 다시금 여실히 보여주었으며 앞으로 그가 권력의 자리에 앉게 되면 남조선에서 어떤 사태가 벌어지겠는가 하는것을 미리 예고해주었다고 할수 있다. 배영일

조선 외무성 대변인 일본 반동들의 유치한 반공화국랍치소동을 규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무성 대변인은 일본반동들이 있지도 않는 《미국인랍치》설을 들고다니면서 여론을 어지럽히고있는 것과 관련하여 15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최근 일본의 그 무슨 《랍치문제》관련단체와 우익정계인물들이 유치하고 너절한 반공화국랍치소동에 열을 올리고있다. 일본자민당소속 국회의원 야마모리나 10일 워싱턴에서 기자회견을 벌여놓고 생동같이 2004년 중국류학중에 실종된 미국인이 우리에게 《랍치》되었을수 있다고 떠들었다. 이것은 완전한 거짓이며

우리 공화국에 대한 또 하나의 새로운 모략책동이다. 지난 시기 일본반동들은 제 집안에서 벌어진 실종사건들을 우리를 억지로 연결시켜 랍치소동을 퍼우다가 터무니없는 날조라는것이 드러나 세상사람들의 비난과 조소를 받았을 것이다. 집안에서 새는 바가지로 밖에까지 들고나가 황당무계한 광대놀음을 벌리는 일본반동들의 정상은 그야말로 정신병자들의 마지막 무덤이 아닐수 없다. 일본반동들이 우리의 성의있는 노력으로 완전히 해결되어 더는 존재하지도 않는 《랍치문제》를 계속 들고다니다 못해 이 나라, 저 나라와 련결시키면서 그 무슨 새로운 랍치설을 떠들고

있는것은 그들의 반공화국 대결광풍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일본에서 정국이 불안정해질 때마다 우익정객들은 민족배타주의와 반공화국적대감고취로 인기를 올리고 위기를 모면해보려고 반공화국 랍치소동에 골짜기 매어달리곤 하였다. 제 몸값을 올릴수만 있다면 너절하고 유치도 모략구의 꼭두각시로도 서슴없이 나서는데 바로 반공화국 모략단체들에 명줄을 잡힌 야마모리나와 같은 일본정객들이다. 사리도 분간할줄 모르고 위선과 모략으로 일복진 일본의 정치에 세상사람들은 침을 뱉고있다. 본사기자

망의 나라

지난 8일 리명박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열거자들을 청와대에 모아놓고 《미국이란 나라는 위대하다.》고 력설하였다. 미국이 과연 리명박의 말처럼 《위대한 나라》인가. 미국은 국제법도 안중에 없이 다른 나라의 자주권을 무참히 짓밟고있는 침략자이며 인류에게 해어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 죽음을 가져다주는 악의 나라이다. 인디언의 피바다위에 솟은 미국의 력사는 다른 나라와 인민에 대한 침략과 전쟁, 약탈과 학살로 일목백출이다. 특히 미국이 우리 민족에게 감행한 침략과 학살만행은 력사상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을 정도로 가장 강도적이고 야수적이었다. 백수십년전부터 우리 나라에 대한 침략의 마수를 뻗쳐온 미국은 일제의 패망과 함께 《해방자》의 탈을 쓰고 남조선을 군사적으로 강점하여 국토를 들로 갈라놓고 우리 겨레에게 민족분열을 강요하였다. 남의 집에 뛰어들어 이 날

강도무리때문에 우리 민족은 반세기이상이나 민족의 자주권을 짓밟히고 민족분열의 수난을 강요당하여왔다. 그로 인해 우리 겨레가 입은 피해와 손실은 실로 막대한것이다. 극도의 민족배타주의와 인간중요사상에 물젖은 미국의 식인종무리들은 우리 민족을 아메리카원주민들을 사냥하듯 다치는대로 살육하였다. 조선전쟁시기 미국이 감행한 대학살만행은 조선인민족살을 노린 가장 야수적인 범죄행위였다. 전쟁개시후 1년사이에만도 미군에 의해 총칭북도 영동군 로근리를 비롯하여 남조선의 수많은 지역들에서 무려 100만여명의 평화적주민들이 무참히 학살되었다. 인민의 초보적인 량심과 도덕도 없는 이런 살인강도, 야만의 무리들에 의해 전후에도 남조선에서는 어느 하루도 인민들의 피가 흐르지 않는 날이 없었다. 나물뜯는 소녀를 평이라고 하면서 쪼아죽인 《군

산소녀총격사건》을 비롯하여 《부평소년전승기적재사건》, 《과주나문산사살사건》, 《동두천녀인사살사건》, 《윤금이살해사건》, 장갑차로 지나가던 두 녀중학생을 야수적으로 잡아죽인 사건을 비롯하여 미군에 의해 감행된 살인만행들은 헤아릴수 없이 많다. 근 70년간 조선의 분열을 지속시켜 우리 민족에게 커다란 고통과 불행, 고통을 강요한 미국은 이것도 모자라 지금 전체 조선인민을 핵전쟁참화속에 빠뜨리기 위한 대조선전쟁책동을 끊임없이 감행하는 불구대천의 원수이다. 침략과 전쟁이 없는 한 시도 살수 없는 미국이기에 20세기말 발간전쟁, 21세기 초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침공 등 세계도처에서 매일과 같이 침략전쟁을 일삼으며 무고한 주민들을 마구 살해하고있다. 더우기 미국은 한줌도 못되는 돈있는자들에게는 천당이지만 절대다수 근로하는 인민들에게는 지옥과도 같은 인연케허지이다. 본사기자 주광일

이런 나라를 《위대하다》고 하는것은 결국 백주에 칼부림하는 강도를 《영웅》이라고 하는것만큼이나 어울리지 않는 찬사이다. 하긴 미국에 대한 환상과 숭상이 풀수에 배인 리명박이다보니 그럴만도 하다. 그가 《대통령》이 되자마자 약육강식의 강도철학인 미국식 《실용주의》를 통치리념으로 삼은것만 보아도 그의 숭미사대기질을 잘 알수 있다. 미국의 투쟁주의인 리명박의 입에서 이따위 쓸개빠진 소리밖에 더 나올 말이 없다. 남조선인민들이 리명박의 발언을 라며하며 바다 건너 미국에 가 살라고 규탄하고 있는것은 너무나도 당연한것이다. 본사기자 주광일

비렬하기 짝이 없는 《조사》 놀음

최근 남조선보수당국이 이전 《대통령》이었던 로무현의 《불법정치자금은닉사건》이란것을 조사한다고 분주함을 퍼우고있다. 그들은 조현오 전 경찰청장을 소환해 2010년 3월 당시 서울 경찰청장이었던 그가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로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가 존재한다고 한 발언의 진실성여부를 확인하는 놀음을 벌리었다. 한편 《새누리당》은 《로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존재부에 대한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 《국민이 바라는것은 한점 거짓 없는 진실 그자체》라며 혼시질을 하고있다. 로무현의 《불법정치자금》을 끝까지 파헤치라는 요구이다. 보수언론들도 그 무슨 《차명계좌》문제를 대서특필하면서 실지 그것이 존재나 하는것이 여론을 오도하고있다. 그러나 거짓말은 오래가지 못하는 법이다. 문제의

《차명계좌》가 허구라는것이 드러났다. 판명된바와 같이 조현오는 아무런 물적증거도 없이 보수세력들속에서 나오는 허구를 그대로 입에 올렸을뿐이었다. 하다면 보수세력이 무엇때문에 있지도 않는 로무현의 《불법정치자금은닉사건》에 대해 숨이 나서 떠드는가 하는것이다. 로무현 전 《대통령》으로 말하면 리명박 《정권》의 부당한 정치관행때문에 목숨을 잃은 사람이다. 리명박 《정권》은 로무현이 마치고 《불법정치자금》이 드러나 자살한것처럼 여론을 우롱함으로써 그를 죽음으로 내몬 저들의 죄행을 합리화하고 권력의 자리에서 쫓겨난 후에도 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이런 놀음을 벌리는것이다. 비단 이것만이 아니다. 최근 보수세력들속에서 이런 소리를 듣고 있는 《식물들》으로 전라리명박 《정권》을 더욱더 파멸에

로 몰아가고있다. 리명박의 측근중의 최측근이라고 하는 전 방총통신원회 위원장 최시중의 《불법정치자금사건》과 전 지식경제부 차관 박영준의 부정부패사건, 《상왕》으로 불리우던 리명박의 형 리상득의 부정부패사건, 민간인불법사찰사건 등 사람들을 아연케 하는 특대형부정부패사건들은 집권말기에 이른 보수세력들의 가련한 처지를 보여주는것으로서 민심을 썩고썩은 그들에게 분노의 침을 뱉고있다. 그런데야 말한 민간인불법사찰사건의 장본인이 리명박이라는것을 보여주는 문건이 공개되어 사람들을 더욱더 격분케 하고있다. 이에 당황한 보수세력들은 검찰당국을 내몰아 이미전에 막을 내린 로무현의 《불법정치자금은닉사건》을 또다시 들추어내어 수사소동을 벌림으로써 여론의 규탄화살을 다른데로 돌리려고 철면피하게 늘어대고있는것이

다. 백봉일

면하면서 《민생》을 떠들며네 누가 그 말을 끝이 들었는가. 이른바 《민생》을 위한다는 그들의 말은 남조선인민들의 생활을 전진으로 격정해서가 아니라 환심을 사기 위한 미사여구이며 앞으로 말 한마디 없이 오히려 《자책도 해줘》 하라는 식으로 독재 《정권》의 궤변을 그대로 되뇌이고있는것도 다름아닌 《새누리당》이다. 지어 《새누리당》의원들이 《민생탐방》기간 파업을 벌리고있는 《MBC》, 《KBS》 언론조직원들과 맞다들린적이 있었는데 《손소리를 들으라 했으니 우리가 야기되고 들어왔다.》며 5년간의 면담을 요구하자 위문으로 도망치는 망측한 꼴도 보였었다. 인민들의 생존권이 직결된 미국산 소고기수입을 지지하고 초보적인 자유와 인권을 위한 투쟁은 의

단평 웃지 못할 희비극

얼마전 남조선의 한 언론이 이른바 《보안법》 위반사건에 대한 재판의 한 장면을 펼쳐보인적이 있다. 재판과정에 증인의 발언에서 《분공》이라는 표현이 나왔다. 그러자 검사란 사람이 《분공이 무슨 뜻인가?》라고 물었다. 《분공은 공동의 일을 분담해서 하는 것》이라는 대답이 나오자 검사는 《그것복의 말이 아닌가?》하고 되물었고 방청석에서는 야유는 웃음이 터졌다. 참으로 웃지 못할 희비극이 아닐수 없다. 혼란 표현마저 대결적인 판년의 자대로 재어보는것도 황당하지만 민족언어사용에 인위적인 장벽을 쌓으려는 교묘한 처사기 더욱 사람들을 격분케 하고있다. 이것은 일제 검사의 실수가 아니라 동족을 《주적》으로 삼고 던어놓고 적대시하는 보수패당이 남조선사회에 퍼뜨린 악역인것이다. 김현

남조선사회에서 《인민》, 《동지》, 《집단주의》, 《일심단결》과 같은 단어는 물론이고 《미군철수》, 《평화통일》, 《우리 민족끼리》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면 《총복세력》이 되고 《보안법》의 적용대상이 된다. 표현 하나만으로도 이 정도이니 공화국을 찬양하는 발언을 하거나 글을 쓰면 영낙없이 《간첩》 혐의, 《반역》 죄를 들쓰게 되는것이 남조선이다. 리명박의 집권기간에 《색갈론》이 대대적으로 등장하였는데 북을 찬양하였다는 어처구니없는 리유로 차단된 인터넷수는 2010년에 33건, 2011년에 187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있다. 대결판념에 폭 물젖은 보수집권세력의 반민족, 반동일책동으로 하여 남조선에서는 교묘한 우리 말, 우리 언어까지 동족대결을 고취하는 모략소동에 악용되고있다. 본사기자 김정혁

《새누리당》의 리념은 《민생》이라니, 《민생을 챙긴다.》느니 하면서 말이다. 그런 속에 얼마전 《새누리당》의 대표 《정권》에 나선 인물들이 남조선전역을 돌며 《민생탐방》에 나서기까지 하였다. 그 무슨 《민생의 손소리 들기》를 위한것이란다... 하지만 그들은 손소리정도를 들은것이 아니라 완전행대와 모멸을 받았다. 어떤 시민들은 《선거권자들의 입맛에 맞는 구호만 웨치다가 《국회》에 들어가면 잊어버린다.》, 《1시간반은 그 과연 제대로 들을수 있을지 회의스럽다.》며 머리를 돌렸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일지리를 잃어 생계가 막막한 사람들에게 재고용의 기회를 주지 못할만큼 불법시위로 막고있다.》, 《전문가도 아닌 사람들이 정책을 만들고있다.》, 《《새누리당》은 약한 사람의 편을 들지 않았다.》며 분노를 표시하였다. 더우기는 《와서 듣지 말고 한주일동안 살아보라.》, 《정치인들에게 시정은 이럴 때만 오는 화장실인것 같다.》는 로플적인 비난도 있었다. 《새누리당》이 이런 대접을 받은것은 응당하다.

최근 남조선에서 《새누리당》이 민심을 그러모아보려고 《민생》타령을 부지런히 웨치고있다. 《《새누리당》의 리념은 《민생》이라니, 《민생을 챙긴다.》느니 하면서 말이다. 그런 속에 얼마전 《새누리당》의 대표 《정권》에 나선 인물들이 남조선전역을 돌며 《민생탐방》에 나서기까지 하였다. 그 무슨 《민생의 손소리 들기》를 위한것이란다... 하지만 그들은 손소리정도를 들은것이 아니라 완전행대와 모멸을 받았다. 어떤 시민들은 《선거권자들의 입맛에 맞는 구호만 웨치다가 《국회》에 들어가면 잊어버린다.》, 《1시간반은 그 과연 제대로 들을수 있을지 회의스럽다.》며 머리를 돌렸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일지리를 잃어 생계가 막막한 사람들에게 재고용의 기회를 주지 못할만큼 불법시위로 막고있다.》, 《전문가도 아닌 사람들이 정책을 만들고있다.》, 《《새누리당》은 약한 사람의 편을 들지 않았다.》며 분노를 표시하였다. 더우기는 《와서 듣지 말고 한주일동안 살아보라.》, 《정치인들에게 시정은 이럴 때만 오는 화장실인것 같다.》는 로플적인 비난도 있었다. 《새누리당》이 이런 대접을 받은것은 응당하다.

《민생》타령의 본질

지금 남조선에서 벌어지고 있는 미국산 소고기수입반대 초보시위나 언론로조의 파업, 노동자들의 해고반대 투쟁 등 민생과 직접 관련된 문제에 대한 《새누리당》의 태도나 립장은 결코 인민들의 편이 아니기때문이다. 지금 남조선전역에서 또다시 떠오른 미국산 소고기수입을 반대하는 초보시위에 대한 《새누리당》의 기만성을 보기도 하자. 2008년 5월을 방불케 하는 대규모초보시위가 벌어지자 《새누리당》은 《미국과의 무역마찰보다 국민의 건강을 더 우선시해야 한다.》느니 《조금이라도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밝혀지면 수입도 중단해야 한다.》느니 하면서 민생의 편에 서는척 하였다. 하지만 리명박 《정권》이 미국에 보낸 조사단이 《조사결과》라는것을 내놓자 180°로 급변하여 《조사결과가 맞다면 무력대고 수입중단을 요구할수 없다.》는 립장을 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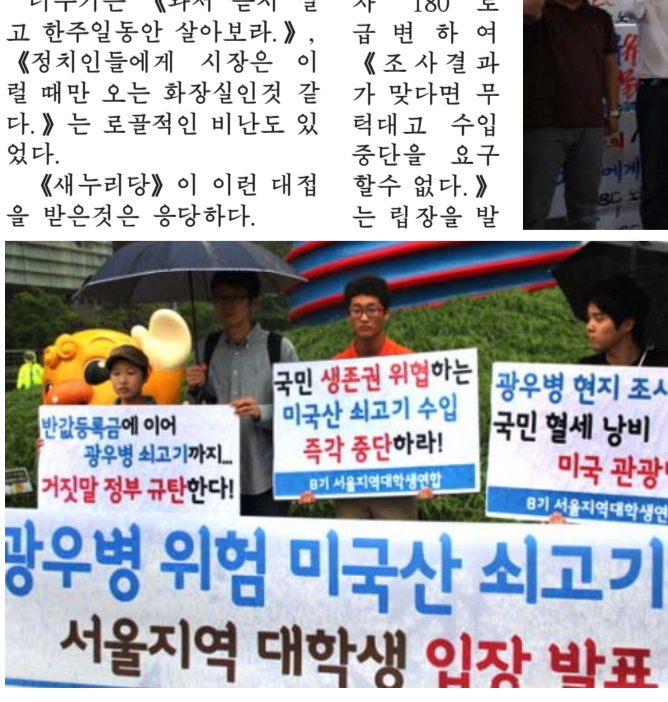
표하였던것이다. 그 《조사결과》라는것은 리명박 《정권》이 남조선인민들의 항의에 못 이겨 미국의 소동장을 몇개 돌아보고 미국이 내어준 문건이나 뒤적이며 만들어낸 일치가 《조사》 문건이라는것을 초등학교 학생들도 다 알고있다. 《초보이 옳았다. 리명박이 틀렸다.》고 웨치며 거리마다에서 초보시위가 벌어지고있는 때에 《민생을 챙긴다.》는 《새누리당》만이 황당한 《조사결과》를 지지하고있으니 과연 그것도 민생을 위한것이라고 말할수 있겠는가. 리명박 《정권》의 언론장악을 반대하고 언론의 공정성을 요구하여 100일나마 벌

어지고있는 《MBC》 언론로조파업이나 70여일 진행되고 있는 《KBS》, 《YTN》 언론로조의 파업에 대해 옳은 말 한마디 없이 오히려 《자책도 해줘》 하라는 식으로 독재 《정권》의 궤변을 그대로 되뇌이고있는것도 다름아닌 《새누리당》이다. 지어 《새누리당》의원들이 《민생탐방》기간 파업을 벌리고있는 《MBC》, 《KBS》 언론조직원들과 맞다들린적이 있었는데 《손소리를 들으라 했으니 우리가 야기되고 들어왔다.》며 5년간의 면담을 요구하자 위문으로 도망치는 망측한 꼴도 보였었다. 인민들의 생존권이 직결된 미국산 소고기수입을 지지하고 초보적인 자유와 인권을 위한 투쟁은 의

본사기자 김정혁



남조선인민들 미국산 소고기수입중지를 요구하며 투쟁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서울지역 대학생 입장 발표 기자회견



쌍용차 문제 해결하라!

나라의 면모를 세 세기의 요구에 맞게 일신하고 민족의 성지 평양을 웅장화하고 풍치수려한 세계적인 도시로 훌륭히 꾸리는 데서 건축설계는 매우 중요한 몫을 차지한다. 거리형성에서 건축설계는 척추병과도 같다. 얼마전 평양에서 진행된 제12차 5.21건축전은 강성국가 체제에 어울리는 건축물들을 훌륭히 일떠세우는데서 절실한 문제로 나서는 실효성이 큰 설계형성안들이 수없이 출품되어 내외의 이목을 끌었다.

각지의 건축건설, 건재, 설계연구부, 과학교육기관 일꾼들과 건축가, 기술자, 교원, 연구사, 창작가들의 기대와 관심속에 240여건의 건축설계현상모집작품, 320여건의 과학논문, 20여건의 건축설계프로그램과 다매체편집물들이 전시된 축전은 건축형성계획들에 대한 현상모집과 과학논문발표회, 건축설계프로그램 및 다매체편집물창작경연 등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그중에서도 참가자들의 눈길을 끈 것은 특색있는 기동식살림집형성설계안들이었다. 김현철 평양건설전재종합대학 건축대학 건축설계강좌장은 이렇게 말하였다.

《기동식살림집이라고 할 때 현관이나 계단, 승강기실

과 같이 사람들의 오르내림 통로를 묶어 하나의 기동식살림집형성설계안들을 돌아보았다. 종전의 탑식건물들과 달리 건물의 아래부분을 기동으로 처리하니 여러모로 편리하면서도 보기에 변을 따라 덩지 큰 건물들을 배치했을 때 느껴지는 폐쇄감과 답답한 감, 사람들의 이동에서의 불편을 없애고 건물의 아래부분이나 중간부분을 여러가지 형식으로 판통시켜줌으로써 거리형성의 공간적격이와 다양성, 립체성을 보장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의 설명을 들으며 참가자들은 전시된 기동식살림집형성설계안들을 돌아보았다. 종전의 탑식건물들과 달리 건물의 아래부분을 기동으로 처리하니 여러모로 편리하면서도 보기에 변을 따라 덩지 큰 건물들을 배치했을 때 느껴지는 폐쇄감과 답답한 감, 사람들의 이동에서의 불편을 없애고 건물의 아래부분이나 중간부분을 여러가지 형식으로 판통시켜줌으로써 거리형성의 공간적격이와 다양성, 립체성을 보장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의 설명을 들으며 참가자들은 전시된 기동식살림집형성설계안들을 돌아보았다. 종전의 탑식건물들과 달리 건물의 아래부분을 기동으로 처리하니 여러모로 편리하면서도 보기에 변을 따라 덩지 큰 건물들을 배치했을 때 느껴지는 폐쇄감과 답답한 감, 사람들의 이동에서의 불편을 없애고 건물의 아래부분이나 중간부분을 여러가지 형식으로 판통시켜줌으로써 거리형성의 공간적격이와 다양성, 립체성을 보장할 수 있게 해줍니다.》

시켜주어 쇠바줄다리를 현상케 하는 《은정》 등 대형공기조화, 온도조절기능을 보여주었다면 빛과 열, 풍력을 비롯한 재생에너지들을 효과적으로 리용하는 건물설계안들은 건물의 녹색화를 실현하고 도시생태환경을 개선하는데서 실리가 큰 것으로 하여 눈길을 끌었다.

그중에는 유기체의 피막세포와 같은 인공세포들로 이루어진 녹색형성설계 《최후대》, 《줄기》, 1중학교형성설계 《배울터》와 같은 설계형성안들에도 많은 사람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빛을 생산하고 공기정화 및 공기조화, 온도조절기능을 수행할뿐 아니라 건물의 단열, 진동에서 물을 재순환시켜 깨끗한 물소비를 최상화할 수 있게 한 설계형성안 《미래》는 곧 현실에 도입된다고 한다.

대기질과 주변형성계획 《호모》, 《넬민》, 《영생》, 본보기살림집구획형성계획 《행복》, 고속철도

역사형성설계 《최후대》, 《줄기》, 1중학교형성설계 《배울터》와 같은 설계형성안들에도 많은 사람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빛을 생산하고 공기정화 및 공기조화, 온도조절기능을 수행할뿐 아니라 건물의 단열, 진동에서 물을 재순환시켜 깨끗한 물소비를 최상화할 수 있게 한 설계형성안 《미래》는 곧 현실에 도입된다고 한다.

대기질과 주변형성계획 《호모》, 《넬민》, 《영생》, 본보기살림집구획형성계획 《행복》, 고속철도

역사형성설계 《최후대》, 《줄기》, 1중학교형성설계 《배울터》와 같은 설계형성안들에도 많은 사람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빛을 생산하고 공기정화 및 공기조화, 온도조절기능을 수행할뿐 아니라 건물의 단열, 진동에서 물을 재순환시켜 깨끗한 물소비를 최상화할 수 있게 한 설계형성안 《미래》는 곧 현실에 도입된다고 한다.

대기질과 주변형성계획 《호모》, 《넬민》, 《영생》, 본보기살림집구획형성계획 《행복》, 고속철도

라양식장의 건축계획에 대한 연구》를 비롯하여 나라의 건축설계과학과 기술을 발전시키는데서 가치있는 논문들과 구조설계지원체제, 도시하부구조보강계획을 비롯한 우수한 프로그램 및 다매체편집물들도 많았다.

강성국가건설의 요구에 맞게 국토관리사업에서 혁명적전환을 가져올데 대한 경애하는 김정일최고령도자의 력사적인 로적이 발표된 뜻깊은 시기에 진행된 제12차 5.21건축전은 인민의 문명향상을 위한 건축건설과 과학연구사업에서 이대 전진을 가져오게 한 중요한 계기로 되었다.

김영진



기동식살림집형성설계

특색형전자도서관형성설계

고속철도역사형성설계

사과꽃 품계 피는 5월이다. 멀리 이 나라 북쪽의 한 끝에서 분계연선까지 조국땅 방방곡곡을 아름답게 수놓으며 향기로운 꽃바다가 끝내 없이 펼쳐졌다. 따스한 계절을 맞이한 세계각지의 대동강과수종합농장이며 풍전과 덕성, 신의주와 고산, 일망무제한 대파원들이 꽃시절을 노래한다.

아름다운 사과꽃이 인민의 마음속에 자리잡기 시작한 것은 언제부터였는가.

돌아보면 지금으로부터 4년전이었다. 주제97(2008)년 5월 아버지 장군님께서 고산과수농장을 찾으셨다는 소식이 온 나라에 전해졌다. 칙락의 검은 불기를 밀려오던 때에도 봄을 먼저 알리는 꽃이 되리라는 노래를 마음속으로 부르시며 철

령을 넘고넘으신 장군님. 인민에게 기쁨을 안겨줄 그날을 그려보시며 고난과 시련을 헤치신 그이의 로고와 헌신과 덕성, 신의주와 고산, 일망무제한 대파원들이 꽃시절을 노래한다.

아름다운 사과꽃이 인민의 마음속에 자리잡기 시작한 것은 언제부터였는가.

돌아보면 지금으로부터 4년전이었다. 주제97(2008)년 5월 아버지 장군님께서 고산과수농장을 찾으셨다는 소식이 온 나라에 전해졌다. 칙락의 검은 불기를 밀려오던 때에도 봄을 먼저 알리는 꽃이 되리라는 노래를 마음속으로 부르시며 철

령을 넘고넘으신 장군님. 인민에게 기쁨을 안겨줄 그날을 그려보시며 고난과 시련을 헤치신 그이의 로고와 헌신과 덕성, 신의주와 고산, 일망무제한 대파원들이 꽃시절을 노래한다.

아름다운 사과꽃이 인민의 마음속에 자리잡기 시작한 것은 언제부터였는가.

돌아보면 지금으로부터 4년전이었다. 주제97(2008)년 5월 아버지 장군님께서 고산과수농장을 찾으셨다는 소식이 온 나라에 전해졌다. 칙락의 검은 불기를 밀려오던 때에도 봄을 먼저 알리는 꽃이 되리라는 노래를 마음속으로 부르시며 철

령을 넘고넘으신 장군님. 인민에게 기쁨을 안겨줄 그날을 그려보시며 고난과 시련을 헤치신 그이의 로고와 헌신과 덕성, 신의주와 고산, 일망무제한 대파원들이 꽃시절을 노래한다.

아름다운 사과꽃이 인민의 마음속에 자리잡기 시작한 것은 언제부터였는가.

돌아보면 지금으로부터 4년전이었다. 주제97(2008)년 5월 아버지 장군님께서 고산과수농장을 찾으셨다는 소식이 온 나라에 전해졌다. 칙락의 검은 불기를 밀려오던 때에도 봄을 먼저 알리는 꽃이 되리라는 노래를 마음속으로 부르시며 철

령을 넘고넘으신 장군님. 인민에게 기쁨을 안겨줄 그날을 그려보시며 고난과 시련을 헤치신 그이의 로고와 헌신과 덕성, 신의주와 고산, 일망무제한 대파원들이 꽃시절을 노래한다.

아름다운 사과꽃이 인민의 마음속에 자리잡기 시작한 것은 언제부터였는가.

돌아보면 지금으로부터 4년전이었다. 주제97(2008)년 5월 아버지 장군님께서 고산과수농장을 찾으셨다는 소식이 온 나라에 전해졌다. 칙락의 검은 불기를 밀려오던 때에도 봄을 먼저 알리는 꽃이 되리라는 노래를 마음속으로 부르시며 철

령을 넘고넘으신 장군님. 인민에게 기쁨을 안겨줄 그날을 그려보시며 고난과 시련을 헤치신 그이의 로고와 헌신과 덕성, 신의주와 고산, 일망무제한 대파원들이 꽃시절을 노래한다.

아름다운 사과꽃이 인민의 마음속에 자리잡기 시작한 것은 언제부터였는가.

돌아보면 지금으로부터 4년전이었다. 주제97(2008)년 5월 아버지 장군님께서 고산과수농장을 찾으셨다는 소식이 온 나라에 전해졌다. 칙락의 검은 불기를 밀려오던 때에도 봄을 먼저 알리는 꽃이 되리라는 노래를 마음속으로 부르시며 철

령을 넘고넘으신 장군님. 인민에게 기쁨을 안겨줄 그날을 그려보시며 고난과 시련을 헤치신 그이의 로고와 헌신과 덕성, 신의주와 고산, 일망무제한 대파원들이 꽃시절을 노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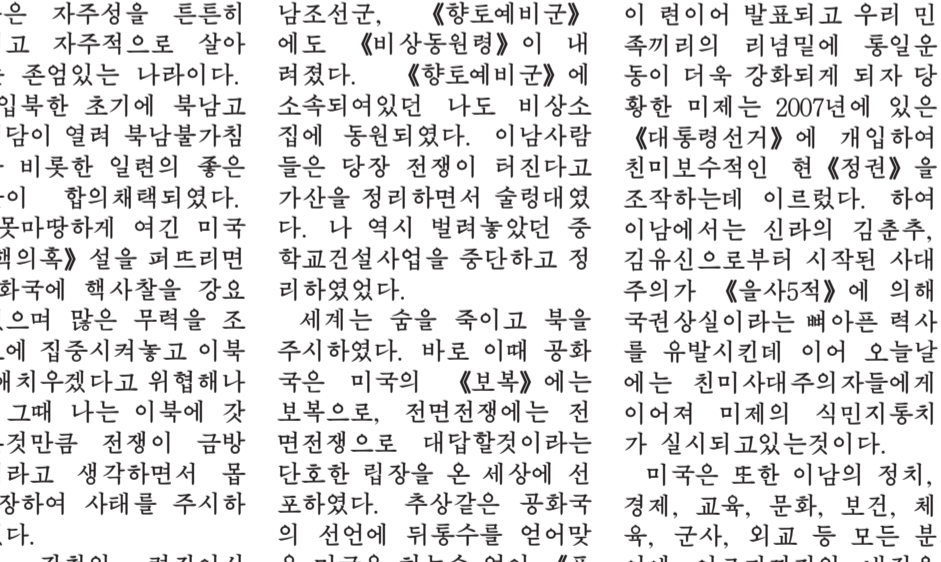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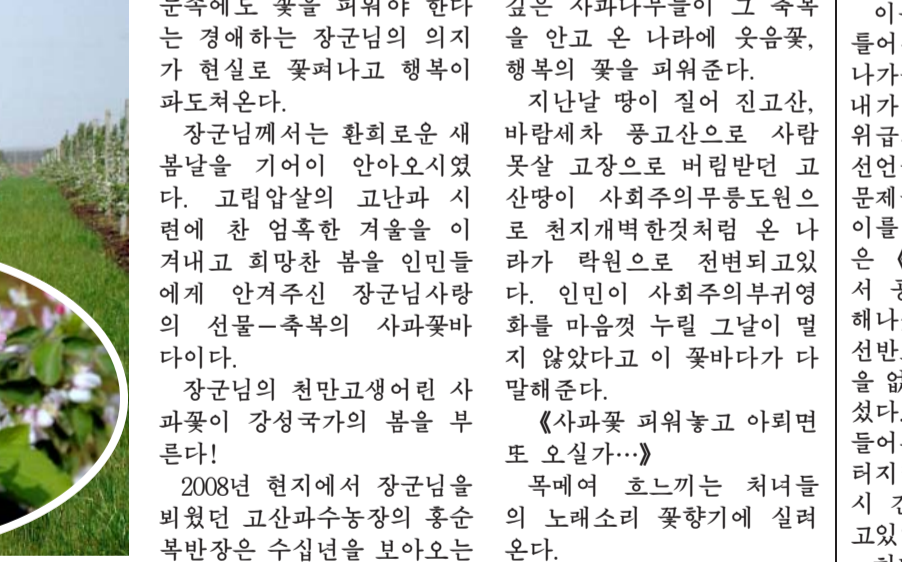
아름다운 사과꽃이 인민의 마음속에 자리잡기 시작한 것은 언제부터였는가.

돌아보면 지금으로부터 4년전이었다. 주제97(2008)년 5월 아버지 장군님께서 고산과수농장을 찾으셨다는 소식이 온 나라에 전해졌다. 칙락의 검은 불기를 밀려오던 때에도 봄을 먼저 알리는 꽃이 되리라는 노래를 마음속으로 부르시며 철

령을 넘고넘으신 장군님. 인민에게 기쁨을 안겨줄 그날을 그려보시며 고난과 시련을 헤치신 그이의 로고와 헌신과 덕성, 신의주와 고산, 일망무제한 대파원들이 꽃시절을 노래한다.

아름다운 사과꽃이 인민의 마음속에 자리잡기 시작한 것은 언제부터였는가.

돌아보면 지금으로부터 4년전이었다. 주제97(2008)년 5월 아버지 장군님께서 고산과수농장을 찾으셨다는 소식이 온 나라에 전해졌다. 칙락의 검은 불기를 밀려오던 때에도 봄을 먼저 알리는 꽃이 되리라는 노래를 마음속으로 부르시며 철



대동강과수종합농장에 펼쳐진 사과꽃바다

별이 총총한 밤거리를 어 깨나란히 걷는 두 녀성이 있었다. 밤공 빼서든 마지막 순간으로 내린 이들은 만수대지건설장에서 야간직업 작업을 마치고 돌아가는 리 급하, 김기만녀성이었다.

공정에서 하루일을 마친 저녁이면 집으로가 아니라 만수대지건설장으로 달려가곤 하는 이들이었다. 누가 시켜서 걷는 길이 아니었다. 명예나 보수를 바라고 걷는 길은 더욱 아니었다.

누가 보진말건, 알아주진 말건 만년대계의 기념비적 창조물을 일떠세우는 보람찬 투쟁에 뛰어들어 애국의 구슬땀을 흘리고싶은 소박한 마음을 안고 걷는 길이 있었다.

이렇게 밤길을 걷기 시작한 때로부터 벌써 몇달째인지 모른다. 낮에는 낮대로

별이 총총한 밤거리를 어 깨나란히 걷는 두 녀성이 있었다. 밤공 빼서든 마지막 순간으로 내린 이들은 만수대지건설장에서 야간직업 작업을 마치고 돌아가는 리 급하, 김기만녀성이었다.

공정에서 하루일을 마친 저녁이면 집으로가 아니라 만수대지건설장으로 달려가곤 하는 이들이었다. 누가 시켜서 걷는 길이 아니었다. 명예나 보수를 바라고 걷는 길은 더욱 아니었다.

누가 보진말건, 알아주진 말건 만년대계의 기념비적 창조물을 일떠세우는 보람찬 투쟁에 뛰어들어 애국의 구슬땀을 흘리고싶은 소박한 마음을 안고 걷는 길이 있었다.

이렇게 밤길을 걷기 시작한 때로부터 벌써 몇달째인지 모른다. 낮에는 낮대로

별이 총총한 밤거리를 어 깨나란히 걷는 두 녀성이 있었다. 밤공 빼서든 마지막 순간으로 내린 이들은 만수대지건설장에서 야간직업 작업을 마치고 돌아가는 리 급하, 김기만녀성이었다.

공정에서 하루일을 마친 저녁이면 집으로가 아니라 만수대지건설장으로 달려가곤 하는 이들이었다. 누가 시켜서 걷는 길이 아니었다. 명예나 보수를 바라고 걷는 길은 더욱 아니었다.

누가 보진말건, 알아주진 말건 만년대계의 기념비적 창조물을 일떠세우는 보람찬 투쟁에 뛰어들어 애국의 구슬땀을 흘리고싶은 소박한 마음을 안고 걷는 길이 있었다.

이렇게 밤길을 걷기 시작한 때로부터 벌써 몇달째인지 모른다. 낮에는 낮대로

별이 총총한 밤거리를 어 깨나란히 걷는 두 녀성이 있었다. 밤공 빼서든 마지막 순간으로 내린 이들은 만수대지건설장에서 야간직업 작업을 마치고 돌아가는 리 급하, 김기만녀성이었다.

공정에서 하루일을 마친 저녁이면 집으로가 아니라 만수대지건설장으로 달려가곤 하는 이들이었다. 누가 시켜서 걷는 길이 아니었다. 명예나 보수를 바라고 걷는 길은 더욱 아니었다.

누가 보진말건, 알아주진 말건 만년대계의 기념비적 창조물을 일떠세우는 보람찬 투쟁에 뛰어들어 애국의 구슬땀을 흘리고싶은 소박한 마음을 안고 걷는 길이 있었다.

이렇게 밤길을 걷기 시작한 때로부터 벌써 몇달째인지 모른다. 낮에는 낮대로

별이 총총한 밤거리를 어 깨나란히 걷는 두 녀성이 있었다. 밤공 빼서든 마지막 순간으로 내린 이들은 만수대지건설장에서 야간직업 작업을 마치고 돌아가는 리 급하, 김기만녀성이었다.

공정에서 하루일을 마친 저녁이면 집으로가 아니라 만수대지건설장으로 달려가곤 하는 이들이었다. 누가 시켜서 걷는 길이 아니었다. 명예나 보수를 바라고 걷는 길은 더욱 아니었다.

누가 보진말건, 알아주진 말건 만년대계의 기념비적 창조물을 일떠세우는 보람찬 투쟁에 뛰어들어 애국의 구슬땀을 흘리고싶은 소박한 마음을 안고 걷는 길이 있었다.

이렇게 밤길을 걷기 시작한 때로부터 벌써 몇달째인지 모른다. 낮에는 낮대로

별이 총총한 밤거리를 어 깨나란히 걷는 두 녀성이 있었다. 밤공 빼서든 마지막 순간으로 내린 이들은 만수대지건설장에서 야간직업 작업을 마치고 돌아가는 리 급하, 김기만녀성이었다.

공정에서 하루일을 마친 저녁이면 집으로가 아니라 만수대지건설장으로 달려가곤 하는 이들이었다. 누가 시켜서 걷는 길이 아니었다. 명예나 보수를 바라고 걷는 길은 더욱 아니었다.

누가 보진말건, 알아주진 말건 만년대계의 기념비적 창조물을 일떠세우는 보람찬 투쟁에 뛰어들어 애국의 구슬땀을 흘리고싶은 소박한 마음을 안고 걷는 길이 있었다.

이렇게 밤길을 걷기 시작한 때로부터 벌써 몇달째인지 모른다. 낮에는 낮대로

별이 총총한 밤거리를 어 깨나란히 걷는 두 녀성이 있었다. 밤공 빼서든 마지막 순간으로 내린 이들은 만수대지건설장에서 야간직업 작업을 마치고 돌아가는 리 급하, 김기만녀성이었다.

공정에서 하루일을 마친 저녁이면 집으로가 아니라 만수대지건설장으로 달려가곤 하는 이들이었다. 누가 시켜서 걷는 길이 아니었다. 명예나 보수를 바라고 걷는 길은 더욱 아니었다.

누가 보진말건, 알아주진 말건 만년대계의 기념비적 창조물을 일떠세우는 보람찬 투쟁에 뛰어들어 애국의 구슬땀을 흘리고싶은 소박한 마음을 안고 걷는 길이 있었다.

이렇게 밤길을 걷기 시작한 때로부터 벌써 몇달째인지 모른다. 낮에는 낮대로

별이 총총한 밤거리를 어 깨나란히 걷는 두 녀성이 있었다. 밤공 빼서든 마지막 순간으로 내린 이들은 만수대지건설장에서 야간직업 작업을 마치고 돌아가는 리 급하, 김기만녀성이었다.

공정에서 하루일을 마친 저녁이면 집으로가 아니라 만수대지건설장으로 달려가곤 하는 이들이었다. 누가 시켜서 걷는 길이 아니었다. 명예나 보수를 바라고 걷는 길은 더욱 아니었다.

누가 보진말건, 알아주진 말건 만년대계의 기념비적 창조물을 일떠세우는 보람찬 투쟁에 뛰어들어 애국의 구슬땀을 흘리고싶은 소박한 마음을 안고 걷는 길이 있었다.

이렇게 밤길을 걷기 시작한 때로부터 벌써 몇달째인지 모른다. 낮에는 낮대로

거목을 떠받드는 뿌리가 되어

레 많은 지원물자를 성의껏 마련하여 건설자들에게 안겨주곤 하였다.

그 날 아버지장군님의 은정어린 감사를 받아안았고 그 믿음에 보답해갈 한 마음으로도 가슴 불태워온 이들이었다.

우리와 만난 자리에서 리 급하, 김기만녀성은 얼굴을 붉히며 이렇게 말하였다.

《누구나 할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누구나 할수 있는 일, 말은 비록 소박하였지만 사회주의조국의 부강번영에 자기를 아낌없이 바쳐가는데서 제일 큰 보람과 행복을 찾을줄 아는 공개국인민들의 숭고한 정신세계를 엿볼

출한 강서구역의 전성철과 족과 평성시 주례동에 살던 신태호가족, 한덕수평양성공업대학 경공업연구소에서 일하다가 창성식료공장에 진출한 김성남, 지난 1월 협동농장을 비롯한 각지의 어렵고 힘든 부문들에 진출하여 애국의 열정을 바쳐가고

출한 강서구역의 전성철과 족과 평성시 주례동에 살던 신태호가족, 한덕수평양성공업대학 경공업연구소에서 일하다가 창성식료공장에 진출한 김성남, 지난 1월 협동농장을 비롯한 각지의 어렵고 힘든 부문들에 진출하여 애국의 열정을 바쳐가고

출한 강서구역의 전성철과 족과 평성시 주례동에 살던 신태호가족, 한덕수평양성공업대학 경공업연구소에서 일하다가 창성식료공장에 진출한 김성남, 지난 1월 협동농장을 비롯한 각지의 어렵고 힘든 부문들에 진출하여 애국의 열정을 바쳐가고

출한 강서구역의 전성철과 족과 평성시 주례동에 살던 신태호가족, 한덕수평양성공업대학 경공업연구소에서 일하다가 창성식료공장에 진출한 김성남, 지난 1월 협동농장을 비롯한 각지의 어렵고 힘든 부문들에 진출하여 애국의 열정을 바쳐가고

출한 강서구역의 전성철과 족과 평성시 주례동에 살던 신태호가족, 한덕수평양성공업대학 경공업연구소에서 일하다가 창성식료공장에 진출한 김성남, 지난 1월 협동농장을 비롯한 각지의 어렵고 힘든 부문들에 진출하여 애국의 열정을 바쳐가고

